전북회화

2005년 통권 제13호 전북회화회발행



愛 / 60호 / 수묵채색 / 2005

올해의 작가안내



박 지 예

원대 대학원 한국화전공(졸)
2002 석사학위청구 개인전
2005 전국 누드크로키전(단원미술관)
2005 전라북도 미술대전(소리문화의 전당)

그림여행

이 광 원

화냥기를 참지 못한 여름이
확확 달아오른 몸을 주체 못해
내 영혼의 들판을 서성거리고 있다

햇살이 쏟아내는 물기를 머금고
눈 아프게 푸르다

보석의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다
차츰 풀냄새를 앞세워
발바닥을 밀고 올라오는 수액
온몸을 적시는 그 열기

내 꿈자리는 지금
빨 · 주 · 노 · 초 · 파 · 남 · 보

이 광 원
전북 김제 출생
전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자유문학 신인상으로 등단
현) 한국민인협회 회원, 전북문인협회 회원, 전주문인협회 회원, 열린시창작회 회원, 전북회화회 회원
알타미라 미술학원장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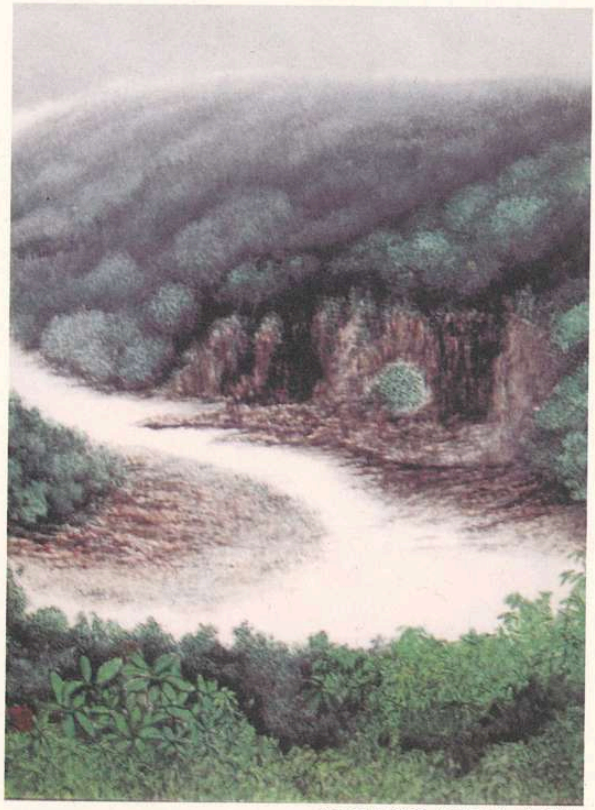
2005년 제13호 전북회화

올해의 작가	2	박지예
나의 작업노트	5	김영애
	6	박지예
	7	방정엽
	8	서진숙
	9	안순금
	10	엄기석
	11	이광원
	12	이승훈
	13	이진숙
	14	이철규
	15	이환배
	16	정미현
	17	최병남
먹빛형상전 (전북회화회,부산,대전 교류전) 안내	18	
제3회 전국청소년한국화실기대회	19	
일본 엑스포관람기	20	김선태
전시리뷰	22	안순금
	24	엄기석
작업실탐방 (강정진)	26	엄기석
서양화와 한국화의 정신	28	이승훈
문인화의 사상	29	이철규
역사와 미술	32	이동희
세계서예비엔날레	34	송유근
미술관을 찾아서	35	엄기석
나의 여행기	37	이진숙
전시장 안내	42	설재경
읽을만한 책	44	편집부
전북회화회 발자취	45	편집부
회원주소록 및 편집후기	46	편집부

2005년 통권 제13호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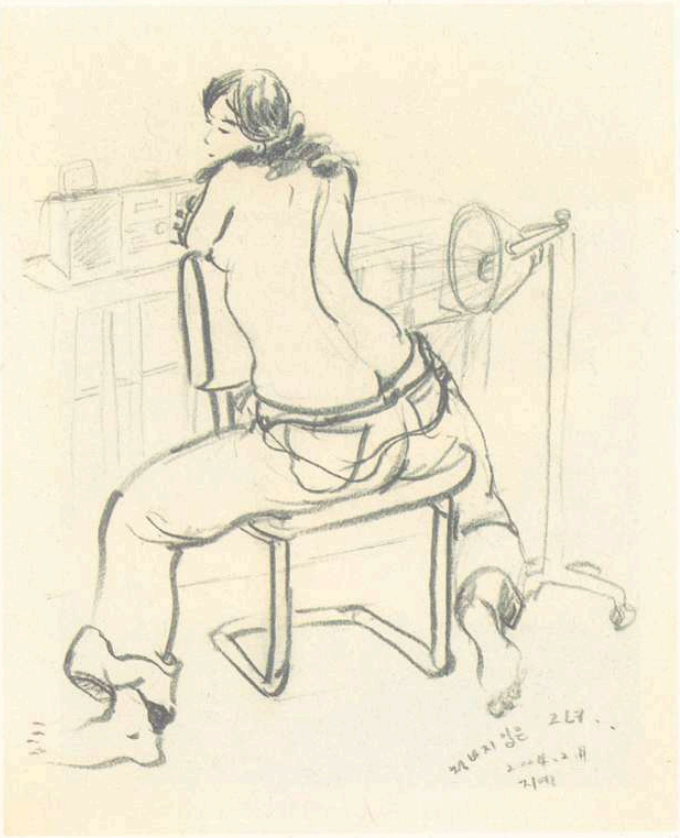
여 운 / 20호 / 장지에 수묵채색

화가는 어떤 면에서 수도자와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지점을 향해
끊임없이 걸으면서 끝없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림은 자기 고백적인 동시에 자아의 표현이기도 하다.
오늘 이만큼 그리고 나면 내일 그만큼 주저하게 되는 반복된 전진과 후퇴 마음을 비우고서야
비로소 보이는 정직한 자기 고백만이 화가의 예술혼에 다가가는 일이 아닐까 나는 길 위에 있다.
아직 더 많이 걸어야 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난 묵묵히 걸을 것이다. 아니 걷고 싶다.
나는 화가로써의 내 삶에 무게를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삶이 그림 자체로 남기를 간결히 바랠 뿐이다.



김 영 애

• 우석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 전북대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재학 • 개인전 1회(코엑스 컨벤션홀) • 얼화랑 1호전 • 우묵회(전북예술회관) • 의식의 새물결전(전북예술회관) • 한국 현대미술대전(중국 서안 미술대학 미술관) • 전라북도 미술대전외 7회 공모전 입특선 • 현) 우묵회, 전북회화회, 의식의 새물결전 회원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41-5 • 전화 : 011-654-8869



청바지를 입은 여자 / 5호 / 크로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볼 기회가 잦아지고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게 되며, 인생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것으로
취미나 오락처럼 또는 물건 고르듯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
내 인생에 있어 후회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다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하는데 세월의 빠름만 한탄한다.
앞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나의 선택에 최선을 다해보겠다.



박 지 예

• 원대 대학원 한국화전공(졸) • 2002 석사학위청구 개인전 • 2005 전국 누드크로키전(단원미술관) • 2005 전라북도 미술대전(소리문화의 전당)



세월(歲月)-꽃이 지네 / 90×75cm / 장지+수묵담채

흐르는 것이 세월 뿐 이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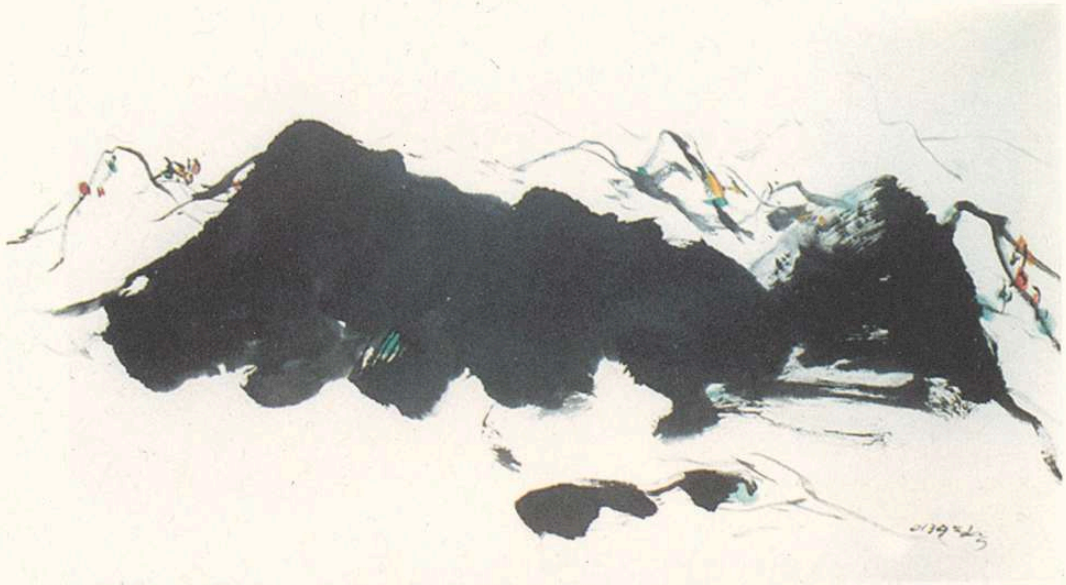
이슬이 내렸다 사라지는데 한나절,
꽃이 피고 지는데 한철,
철새가 날라 가 다시 오기까지 일년,
사람이 서로 만나 사랑하기는 삼년,
그리고,
사랑한 사람을 잊기 까지는
..... 한 평 생 .....

무주에 무서리가 왔다.
마지막 안간힘을 쓰던 노란 국화는 이제 지칠 대로 지쳤나보다.
오우 헨리의 마지막 잎새는 아니더라도 몇 잎 남은 개단풍은 찬란히 스러질 준비를 한다.
오는 듯, 가는 듯, 허망한 가을은 또 그렇게 가고 있었다.
시린 가슴 한켠에 남겨 놓구서.....



방 정 엽

• 전북대 미교과졸 • 현) 전북회화회, 한국미협회원, 무주 무풍고등학교 재직 • 전화 : 063)324-4417(직), H.P : 011-681-7127



청산에 / 40호 / 장지에 수묵

"不狂不及" 미쳐야 미친다.
제목이 나를 사로잡는 책으로 항상 책상위에 자리하고 있다.

요즘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떤 특별한 일에 미친것도 아닌데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시간에 쫓기며 조바심 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 간만에 산책을 하며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염없이 생각에 잠겨며 솔밭사이로 부는 바람을 맞으며 묵향을 그리워한다.

모처럼 붓을 들고 화폭 앞에 서 있으니 행복하다.



서 진 숙

•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개인전 1회 • 단체전, 교류전, 초대전 70여회 참여 • 한국미협, 전북회화회, 전통미술연구회 회원 • 현) 전주남중학교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전주남중학교 • 전화 : 011-683-2506



외 출 / 80×65cm / 수묵담채

산 · 나무 그리고 일상

때때로 나는 먼 곳에서 나의 일상을 본다.
나는 그 속에서 삶의 흔적들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삶을 본다.
내가 지내온 그 시간속의 산, 나무, 강 그리고 나무들이 나를 아직도 붙잡고 있다.

내 작업은 보통 내 주변 환경에 매료되어 있다. 그래서 내 작업은 자연과 일상속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에 의해 구성된다. 그러므로 내 작업의 주제는 일상과 자연속에서 선택되어진다. 그것들은 모든 것을 말한다 : 자동차, 신호등, 옷, 신발, 꽃병, 시계, 산, 꽃, 새 등등. 그리고 그 속에 남아 있는 어떤 알 수 없는 힘.



안 순 금

• 전북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 • 전북대 교육대학교 미술전공 졸 "동양화의 추상성에 관한 연구" • 영국 코벤트리 대학교 예술대학원 졸 • 1997-얼화랑(전주) • 2004-허버트 아트 갤러리(영국) • 2005-우진문화공간 기획 초대전(전주) • 2001-전북,부산 한국화 교류전(부산,금정문화회관 : 전주,삼성문화회관) • 2002-'2002년 전북의 자연과 생성전'(전주, 소리문화전당) • 2004- '새로운 지평선'(영국 버밍햄, 왕립 버밍햄 미술가협회 갤러리)/ '합류'(영국 버밍햄, 왕립 버밍햄 미술가협회 갤러리)/ '전북도립미술관 개관전-전북 미술의 조명'(전주, 전북도립미술관) • 현) 전북회화회 회원, 김제여자고등학교 재직 • 주소 : 560-833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광진햇빛찬아파트 101동 1204호 • 전화 : 063)901-6314(자), 063)544-2512(직), 016-635-6314(휴)



꿈의 정원 / 5호 / 테라코타+수묵

꿈의 정원

나는 일년에 서너 차례 섬진강 기행을 하고 있다. 계절마다 산 빛깔이나 물색, 그리고 바람 내음이 다르지만, 제일 풍경이 아름다운 계절은 역시 가을이다. 청명한 옅은 코발트색 하늘과 가을 산에 피는 쑥부쟁이, 감국, 해국, 산구절초, 산국, 꽃들을 보는 재미도 솔솔하다. 또한 길가에 흔들리는 코스모스도 일품이다. 지리산과 섬진강 물길이 빗어낸 은빛 모래가 풍어처럼 일렁이는 남도의 가을 정원은 꿈길 같다.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물색은 어느 보석보다도 영롱하고 아름답다. 생기를 잃어 바람에 하늘거리는 강아지풀도 정겹기만 하다. 섬진강 바람과 더불어 삶을 영위하는 갈대와 억새들 그것들도 항상 그 자리에서 순환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섬진강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있음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소박한 아름다움이다. 요란하지 않고 치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름다움이다. 나의 삶도 그림도 그러하기를..... 산등성에 보이는 적송의 자태가 고고하고 의연하기만 하다. 모진 풍광에도 아픈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적송의 아름다움이여 그대는 나의 스승이다.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담아 푸르름의 빛과 고상한 자태로 생을 빛내는 너 적송 사랑한다. 나의 삶과 그림은 섬진강의 꿈의 정원을 염원하고 있다. 동양의 작가들은 개성적인 작품보다 격조 있는 아니 품격 있는 일품화(一品畵)을 그리고자 꿈꾸어 왔다. 개성 있는 작품은 창의성만 강조 되지 작가의 인격과 작품은 별개이다. 그러나 격조 있는 일품화는 작품과 작가의 인격이 일치 되어야 한다. 나는 변화와 실험성 강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과 삶과 인격이 일치되는 일품화, 섬진강의 꿈의 정원을 그리고자 한다. 섬진강의 들꽃과 적송,강아지풀, 갈대, 하늘, 바람 내음새 까지 그릴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

2005,가을에 섬진강에서 기석



엄 기 석

• 1986년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한국화 전공)졸업 • 1990년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 2004 전통의 힘-한지와 모필의 조형(전북예술회관/전주) / 전북회화회(전주 국립박물관/전주) / 전라예술제 미술 초대전(한국소리문화의 전당/전주) / 대한민국 청년미술제 초대전(단원미술관/안산) / 한 · 중 현대미술 소통전(민촌아트센터/전주) / 전북 중견, 청년 작가 초대전(전북도립미술관/전주) • 2005 들꽃의 향연전(민촌아트센터/전주) / 영 · 호남 상생의 만남전 (메트로 갤러리/광주) / 한국미술 정예작가 초대전(GEORGE MASON 갤러리/미국워싱턴) /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GIAF) (세종문화회관미술관/서울) / 민촌아트센터 초대전 (민촌아트센터/전주) • 현재 : 한국미술협회, 전통미술연구회, 전북회화회 회원 /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한국회화과 재직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406-3 우성중산타운 102동 1503호 • 전화 : 063-226-8673 (S) 063-222-8357 (H · P) 011-681-8673 • E-mail : egs3344kr@hanmail.net



추 억 / 100호 / 삼베, 먹, 채색

겨울나무로 서다

자취도 없이 너는
내 곁을 떠나갔다.

흩날리는 것들은 낙엽만이 아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텅텅 비어 차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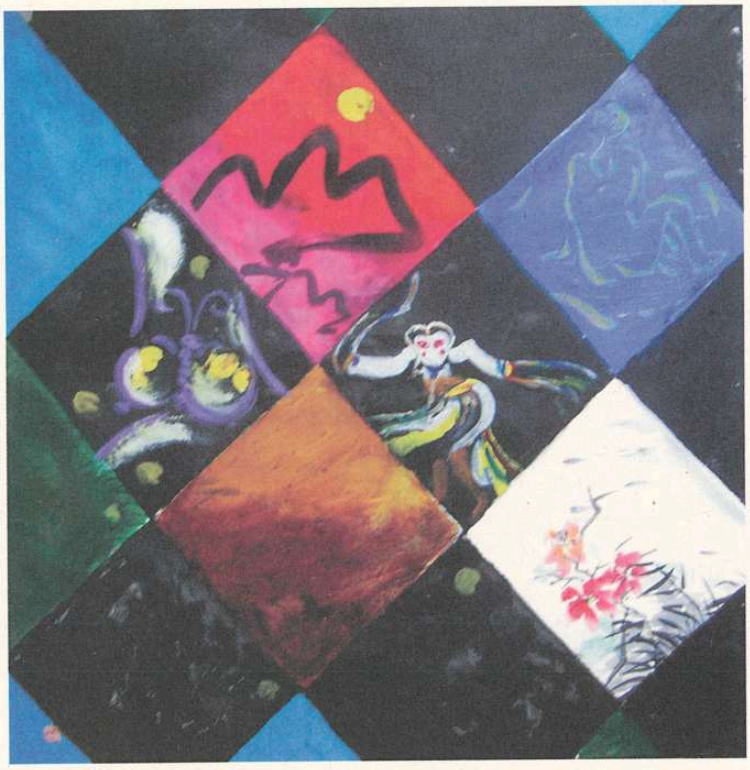
겨울 하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름 잡는 철새라 해도 상관없다.

마음을 비우고 잎을 털어내고 서서
가슴이 시린 겨울 나무,
추억의 언덕 위에. 너
홀로 서 있다.



이 광 원

• 전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1회 • 전라북도 미술대전 특선 3회, 입선 2회 • 전북 개천 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춘향미술대전 우수상 1회, 특선 2회, 입선 1회 • 전북 무등 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단원 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신 미술대전 입선 1회 • 전국 아시아 미술대전 입선 1회 • 그룹전 10회 : 채담회전(전남예술회관, 목포예술회관), 우수대학원생 초대전(안산단원미술관) • 전라북도 단체연립전 2회(전북예술회관), 2002년 부산 환경미술제 출품 • KAF 2005 코리아아트페스티벌 초대전(세종문화회관) • 전국 춘향미술대전 추천작가, 전북회화회 회원 • 주소 : (우)560-77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코오롱 아파트 3동 1104호 • 전화 : 063)225-6292, 241-8745(작업실), 011-656-6292 • E-mail : leekwon1117@hanmail.net



산유화 / 20호 / 수묵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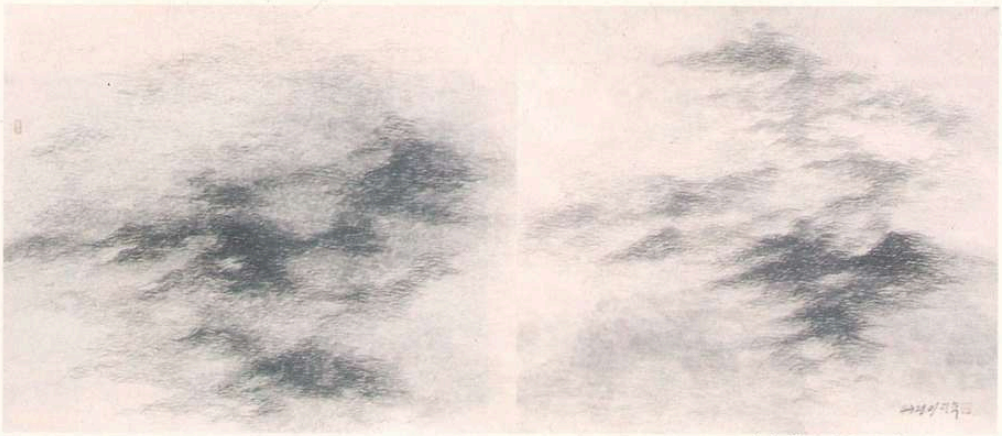
산 유 화

축제는 시작 되었다. 만월도 자취를 감추었던 자리에 붉은 노을은 시린 땅을 덮고,
산에는 산유화가 만발했다. 꺾임과 풀림, 빠름과 느슨함이 손목과 손가락 마디마다 출렁이고 있다.
흙은 그렇게 정직함을 내보이고 있다. 허공에 씨를 뿌린 게 아니다.
삶의 역정이 숨 가쁘게 치달아 올라도 덩더쿵 덩실덩실 춤이 나온다.
산유화가 피면서 숨은 씨앗을 보았고, 그 속에 춤추는 나비와 너의 정직함이 있음을 알았다.



이 승 훈

• 全州大學 美術敎育科 卒 同 大學院 美術科 卒業 • 個人展 1回(全北藝術會館) • 東으로 韓國現代美術展(中國西安美術學院美術館) • 全北人物列展(全北藝術會館) • 傳統의 힘, 韓紙와 毛筆의 造形展 外 多數 • 大陸의 메아리展(安山 丹園展示館) • 全北美術의 照明(全北道立美術館) • 現 : 山墨會, 志朋展, 全北繪畵, 韓國美協, 傳統美術敎育硏究會, ART, 益山古蹟硏究會, 천칭天秤文學會 會員, 群山大成中學校 勤務 • 주소 : 익산시 모현동 현대3차 아파트 303동 607호 • 전화 : 011-9021-9300



거기에는... / 수묵 / 140×40cm

붓이 움직인다.
춤을 춘다.

외씨 같은 버선 발이
산,
물,
구름,
안개를 찍어낸다.

장삼자락이
구름위에
살포시 내려와
입맞춤 하며
속삭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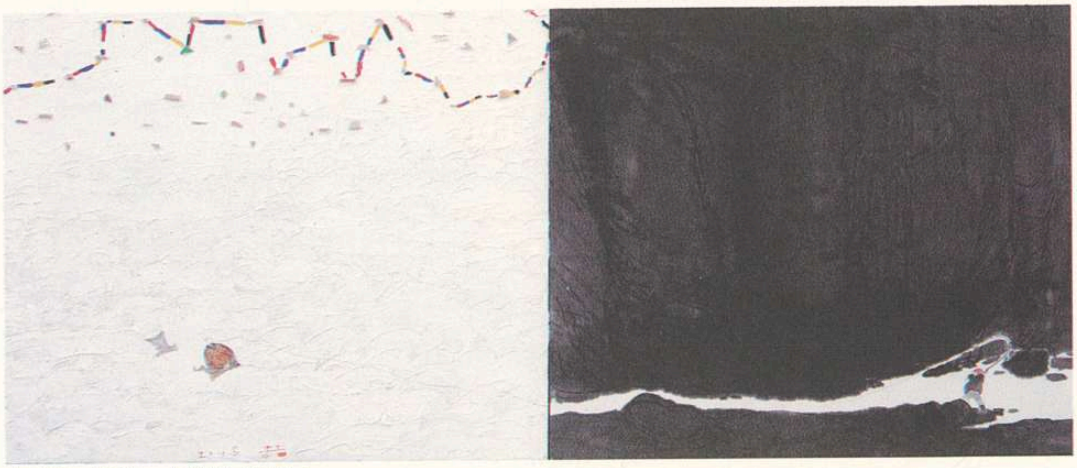
긴 이야기를 풀어내듯
명주수건의
흥겨운 춤사위가
안개 속에 휘몰아치며
녹아내린다.

붓이 움직인다
춤을 춘다.



이 진 숙

• 원광대학교 졸 • 개인전 7회 • 그룹전 및 초대전 다수 참석 • 현) 한국미협, 원묵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 전북회회회 회원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거성고속 2차 912호 • 전화 : 063)274-2662(자), 063)225-6605(작업실), H.P : 011-9437-2662



숨 / 50 x 100 Cm / 한지에 혼합재료

나의 그림은 구상과 추상, 입체와평면, 수묵과 채색, 음과 양 등이
함께 동거하는 이야기 구조의 그림이다.
즉 각각의 화면에 따로 제작 후 좌우로 合하여 완성하는 형태이다.



이 철 규

• 개인전 14회(서울, 전주, 미국) • 전북청년미술상 • 대한민국 청년미술제 본상 • 02년 MANIF전(예술의전당, 서울) • 풍경.산수.풍경전(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전북도립미술관개관-엄외-전(전북도립미술관, 전주) • 현) 전북회화, 시공, 우묵, 미협회원,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190-6 • 전화 : HP : 018-279-3775, 063) 222-4247(H), 063)640-7205(O)



정자나무 / 40호 / 수묵채색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로 펼쳐지는 들녘은
을시년 스럽게 앙상한 벼 밑동만 남아
더욱 더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는 구나
저산 저 너머로 노을저가는 빨간 태양 아래
마을 앞 어귀엔 항상 그 자리에서 우둑하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정자나무 한 그루가
짝사랑하는 님을 마주친 듯 더욱더 붉어져 보이는 구나



이 환 배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과 졸 • 한국화 2인전(전북예술회관) •서울 한국화 비엔날레(시립미술관/서울) •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전(홍갤러리/서울) • 정선아라리회화제(백상갤러리/서울) •우리의식공동체전(문예진흥원/서울) • 의식의 확산전(예술의전당/서울) • 감성표출전(인테코화랑/서울) • 동악 71~94(운형궁미술관/서울) •대한민국 청년미술제(인천종합예술회관) •전라한국화제전(국립전주박물관) • 현. 전북회화회, 예원예술대학 객원교수



묵 상 / 65 x 90Cm / 천에수묵

눈이 부시도록 쏟아지는 자연의 빛깔 앞에 슬픔을 느끼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 이 길이었구나! 하며 정신없이 가다가 문득 두려움과 떨림으로 움츠려 든다.
그래! 그의 숨소리였어, 잘 들어봐.....

.....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귀를 닫아야 돼, 세상 속에서
희뿌연 빛이 내 정수리를 돌며 어스름한 빛이 밝아져온다.
한결 마음이 편해진다.
긴 숨을 가득 삼키고선 나를 넌지시 바라본다.
참으로 감사하여 가슴이 울컥 저려온다.



정 미 현

• 개인전 5회 • 단체전 및 초대전 100여회 참여 • 현) 군산 산북중학교 근무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송림타워 1동 404호
• E-mail : hyun3560@hanmail.net



正.反.合-내재율 / 60 x 60 Cm / 혼합재료+α

내재율-세월의 편린속에 던져진 화두

삶은 수많은 경험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가며 정보의 홍수속에서 컴퓨터를 두드리고 머리는 터질 듯이 복잡하여 마음은 항상 번뇌에 시달리고, 사회적 성공이라는 주술에 묶인채 마치 한곳으로 몰려가는 양떼들처럼 떠밀려가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런지..... 과연 이러한 물화된 성취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묻고 성찰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일상의 인습적 사고에 함몰되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온갖 일에 너무 쉽게 집착한다. 삶은 흐름이라서 그 어떤 것도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성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열망한다. 모든 것이 조화임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온전함과 더불어 축복이 쫓아 오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조화로움을 가지고 있다. 즉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 거기에 조화가 있다. 나무는 바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별들은 커다란 조화 속에 움직이고 있다. 이 광대무변한 존재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이다. 하나하나가 그 밖의 모든 것들과 곡조를 맞추고 있다. 어떤 갈등도 분열도, 부조화도 없는 것이다 이른바 내적평화 그리고 평정인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얻어지는 경험과 인식의 상황들이 모아져 우리의 삶을 이루고 이러한 세월의 편린들은 수없이 많은 화합과 분열을 통하여 화면의 평정을 꾀하는 내재율을 이루는 것이다. 나의 작업은 이러한 삶의 편린들을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가능한 조형어법으로 구현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또 다른 가치 ,논리체계이든지 간에 나의 화면속에서 조각보들이 짜여지듯 서로 융합하고 분리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의 경이로운 내재율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순간 순간 새롭게 변화하는 삶은 모험인 것이다. 또다른 모험을 위하여 삶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 인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또 다른 여정을 화면속에서 찾아 떠나야 하는 것 인지..... 진정한 화면속에서의 평정과 그로인한 완전한 정.반.합의 내재율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삶의 편린들과 전착한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매우 맑다.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강하게 비추고 있다.



최 병 남

• 전남대학교 미술과 및 경희대학원 졸업 • 개인전 5회(정갤러리, 남태평양 피지, 전북예술회관, 갤러리고을) • 한 중 우호화가 교류전(중국 단동) • 공기전(현대미술 교류회 국제전 - 6개 도시 순회전시) • 부산, 전북 한국화 교류전(부산, 금정 예술회관 • 한국정신사 전북회화회 교류전(서울 조흥갤러리) • A.A.I 국제미술전(미국, 캘리포니아 산로스 아트센터) • 오늘의 한국미술전(예술의 전당) • 한, 일 미술교류전(한국소리문화의 전당) • 전북의 자연과 생성전(한국소리문화의 전당) • 전주대학교 교수작품전(전주대학교 화랑) • 전북회화회전(국립전주박물관)외 단체전, 초대전 200여회 출품 • 한) 한국미술협회 회원, 전북회화회 회원, 전국춘향미술대전 초대작가, 전주대학교 미술학과 출강,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재직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40-3 안행현대APT 102동 604호 • 전화 : 063)227-9526, 011-677-9526 • E-mail : artbn@hanmir.com



먹빛 형상전

전북회화회 · 대전 · 부산 교류전

2005. 12. 17(토) ~ 12. 22(목)

Opening_ 2005. 12. 17(토) pm 3:00

전북학생회관 전시장

부 산
강민경, 강선미, 구본호, 김윤찬, 류희민, 박근표, 배지민, 안현희, 윤미옥, 황금엽, 송지은

대 전
강규성, 강규순, 김성관, 김혜영, 박희화, 박석신, 송형정, 이종필

전북회화회
김영애, 박지예, 방정엽, 서진숙, 안순금, 엄기석, 이광원, 이승훈, 이진숙, 이철규, 이환배, 정미현, 최병남



第3回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 수상작 전시

- 행 사 명 : 제3회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
- 일　　시 : 2005. 7. 7(목) 10:00 ~ 14:00(4시간)
- 장　　소 : 전주 덕진공원
- 주　　최 : 전북회화회
- 후　　원 : 우진문화재단,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중앙대학교 홍익대학교 수원미술교육원, 충남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 종　　목 : 정물화, 풍경화, 문인화(사군자)
- 규　　격 : 화선지 2/1절
- 참가자격 : 중 · 고생(참가비 없음)
- 심사위원 : 예술대학 소속 한국화 전공 교수님(대회 당일 공개심사)
- 전시장소 : 전북예술회관 2층 제5전시실
- 전시기간 : 2005. 8. 5(금)~8. 11(목)
- 시 상 식 : 2005. 8. 5(금) 오후3시 전북예술회관 2층 제5전시실
- 협　　찬 : 신한화구, 전주회방, 동양당, 남문회방, 미대입시, 아트앤디자인

수상자 명단

고등부

대　　상 : 우진문화재단 이사장상-하지수(전통문화고3, 풍경, 상금-2,000,000원)

최우수상 : 예원예술대 총장상-박영선(전주예술고2, 풍경) · 홍익대 수원미술교육원 원장상-황승수(전통문화고3, 풍경)
중앙대 예술대학 학장상-이다래(전통문화고1, 풍경) · 전북대 예술대학 학장상-천영주(전통문화고1, 풍경)
충남대 예술대학 학장상-박노현(전주예술고2, 풍경) · 원광대 미술대학 학장상-배민음(전통문화고3, 풍경)
전주대 예술대학 학장상-박서연(전통문화고3, 풍경) · 전북교육감상-송지나(진경여고3, 정물)
전북교육위원회 의장상-김보미(전통문화고1, 정물) · 한국미협 이사장상-박사랑(전통문화고3, 풍경)

우 수 상 : 김세환(대전예술고3, 풍경) · 최론(전주예술고2, 풍경) · 장지은(전주예술고2, 정물) · 진청(전통문화고2, 풍경)
정미나(전통문화고1, 사군자)

특　　선 : 한상준(김제고3, 풍경) · 오보라(전통문화고1, 풍경) · 임지혜(전통문화고3, 풍경) · 박성민(전통문화고3, 풍경)
유현화(전통문화고1, 정물) · 임지선(전통문화고1, 사군자) · 강승우(전통문화고1, 풍경)

입　　선 : 박윤정(전주예술고2, 풍경) · 이세잔(전통문화고3, 풍경) · 조아란(전통문화고3, 풍경) · 김윤희(전주예술고3, 풍경)
김솔지(전통문화고2, 풍경) · 신은지(전주여고3, 풍경) · 현종오(대전예술고2, 풍경) · 이종철(전통문화고3, 풍경)
임연지(전통문화고2, 풍경) · 박은경(전주예술고1, 풍경) · 이다영(전통문화고1, 풍경) · 박세지(전통문화고1, 풍경)
한수진(김제고2, 풍경) · 이순호(덕암고3, 풍경) · 이주영(전통문화고1, 정물) · 유진아(전통문화고1, 정물)
황유미(전주예술고2, 정물) · 오유미(전통문화고1, 사군자)

중등부

대　　상 : 우진문화재단 이사장상-이중관(풍남중3, 풍경, 상금-500,000원)

최우수상 : 전북교육감상-장효정(전주중3, 풍경) · 전북교육위원회 의장상-박세나(풍남중3, 정물) · 한국미협 이사장상-주보람(전주예중1, 풍경)

우 수 상 : 서우래(군산산북중3, 풍경) · 유미자(군산산북중1, 풍경) · 한소영(군산대성중1, 풍경)

특　　선 : 안수빈(군산산북중1, 풍경) · 정지영(전주남중3, 정물) · 최윤지(군산산북중3, 정물) · 송연지(군산대성중2, 사군자)

입　　선 : 손혜원(전주서중3, 풍경) · 김연수(전주동중3, 풍경) · 이진아(군산산북중2, 풍경) · 배단비(전주예원중3, 풍경) · 채경미(군산대성중2, 사군자)



나고야 아이치 엑스포 관람기

-아날로그와 디지털과의 조화로움-

김선태(예원예술대학교 교수 : 미술평론가, 화가)

올해가 광복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였던 만큼 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동포 사회곳곳에서도 기념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렸다. 필자도 나고야 민단 초청으로 9월 8일부터 1주일간 나고야미술관에서 한국무용을 테마로 초대전을 가졌으며, 덤으로 VIP에게만 부여되는 프리패스 증명서를 발급받아 엑스포(EXPO) 뿐만 아니라 나고야 소재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특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일단 초대전 디스플레이를 마치고 나고야에서 박람회장인 아이치행 전철에 몸을 실었다. 일본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에 비해 차체 크기가 작아 축소지향적인 일본인의 습성을 볼 수 있었다. 나고야 역에 도착하여 엑스포 때문에 특별히 제작된 무공해로 운행되는 리니모(선로 위로 7mm가량 떠다니는 자기부상식 전기자동차)를 타고 행사장까지 가는 동안 위에서 내려다본 엑스포장 규모는 실로 놀라웠으며, 자연을 가급적 훼손하지 않고 치러지는 행사에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난생 처음 느껴보는 푹푹 찌는 더위가 몹시 괴로웠으나 한 곳이라도 더 관람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부지런히 발길을 옮겼다. 그 살인 같은 더위에 각국 행사장 앞에서 보통 한두 시간씩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일본인들의 질서 의식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이번 엑스포는 21세기에 열리는 첫 행사로 지난 3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6개월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일본의 경제 중심인 나고야에서 동쪽으로 멀지 않은 구릉지에서 "자연의 예지(Nature's wisdom)"라는 테마로 20세기 개발의 역사를 넘어 21세기에는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자는 "환경엑스포"를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1970년 오사카엑스포 이후 35년만에 열리는 두 번째 국제박람회로 참가국수는 1백20여 개국으로 2배나 많았다.

행사장 전체를 공원을 개조해 만들었고 엑스포가 끝난 후에는 다시 공원으로 활용되며, 이번 엑스포는 절감(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등 "3R"을 기치로 대체에너지 등 신기술을 대거 도입했다.

그러나 이번 행사가 신기술 운운하고 있지만, 참가국들의 국민소득과 경제력으로 각국가관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개발도상국 및 서남아시아권은 자국을 홍보하는데 주로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하여 기념품을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민속이나 이미지 사진을 전시하는 방식과 더불어 공연을 한다든가 시쳇말로 몸으로 때우고 있었으며, 선진국일수록 최첨단 디지털 방식을 활용하여 마치 비엔날레에 참가한 예술행사처럼 국가이미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한 홍보관에서 느낄 수 있는 촉각적이고 인간적인 분위기도 그 나름대로 정서를 담고 있었으며, 반면 디지털 방식을 채택한 홍보관 에서는 3차원적인 영상을 통하여 인간의 감성과 모든 오감을 자극하여 감동의 폭을 넓혀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 더 우수하고 열등한가하는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어떤 방식을 채택했던간에 각 나라마다 자국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를 소개하는 데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았던 가장 인상적이었던 국가관을 뽑으라면, 단연히 캐나다관으로 기술과 예술이 맞물려 가장 아름다운 영상을 보여주어 세계적인 비엔날레에 참가하더라도 예술적인 측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벽면 전체를 요철이 있는 철사그물망으로 감싸고 그 위에 캐나다의 사계절을 영상으로 비춰 빛이 굴절되면서 구상적이고 추상적인 화면이 펼쳐 나올 때마다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내어 인종과 민족을 넘어선 예술의 힘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탈리아관은 과거 그리스, 로마의 역사성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시하고 디지털 방식을 동원하여 이탈리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었다.

기업들이 참여한 기업관으로는 히타치 관으로 국제자연보호연합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희귀동물을 사실감 넘치는 영상으로 재현해 보였다. 관람객은 0.4mm의 슬림형 비접촉 IC카드(집적회로 카드)를 전시물에 접근시켜 영상을 구동할 수 있어 디지털의 편리함을 느껴볼 수 있었다.

가장 관객들에게 피부와 와 닿았던 아날로그 방식의 전시물로는 특별전시관인 '글로벌 하우스'에서 전시된 시베리아 얼음 속에서 발굴된 1만 년 전의 매머드를 세계 최초로 냉동상태의 실물크기로 복원하여 전시한 것이다. 러시아 연방 시하공화국 북부의 북극해 근처 우카길이라는 마을에서 발견됐던 매머드이다. 매머드 '발굴' 그 자체가 지구 온난화로 초래된 환경파괴의 명백한 증거이자 경고이다. 그래서 엑스포 조직위는 이 냉동 매머드 전시를 주요 프로젝트로 삼아 인간이 초래한 자연의 이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로 제시했다.

특히 한국관은 아날로그 방식인 전통무용 공연과 한지공예품전시 및 기념품 판매 여기에 디지털 방식인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여주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490여 평의 한국관은 3년간 90여억 원을 투입해 만든 전시관으로 '청. 홍. 황. 흑. 백' 등 5가지의 색깔로 한국의 전통과 미래를 표현했으며, 대형 스크린에서 한국의 입체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고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한 파노라마 조명쇼를 연출하여 전시관 안은 환상적 미래 분위기를 자아냈다.

한편, 독도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한 · 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도 아이치엑스포는 한류(韓流)열풍이 뜨거웠다. 한국 관에서 보통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장사진을 이룬 일본인 관광객들의 열띤 표정에서는 독도가 다케시마가 어떻게 되어가든 말든, 그들은 '휴유노소나타(겨울연가)'에 나오는 욘사마(배용준)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었다.

끝으로, 아이치 엑스포는 국제박람회사무국(BIE)의 공인을 받아 5년에 한번씩 열리는 종합박람회이다. 지난 1876년 필라델리아 만국박람회에서 미국의 그레이엄 벨이 전화개발을 발표했다.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는 '에펠탑'을 후세에 남겼다. 아이치 박람회는 과연 어떻게 기억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인류가 생존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일깨워 주는 것이다.

아날로그가 자연이라면 디지털은 인간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엑스포에서 보듯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이 서로의 장점을 갖고 상생하듯이, 이제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지구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생의 지혜가 필요할 시점이다.



아름다운 사람, 안순금 개인전 스케치

2005. 8. 18(목) - 8. 31(수) / 우진문화공간 1층 전시장

정미현(군산산북중학교 교사)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 자연, 사람들, 그리고 함께 피어나는 이야기들이 다 그 속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지키고 있다. 공생과 환생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서 꿈을 꾸듯 꿈틀거리는 이 우주의 만물이 모두 다 아름답다.

내가 아는 안순금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는 순수함과 따뜻함, 그리고 자아의 깊이를 잃지 않으며 일상의 풍경을 그려내는 잔잔한 열정을 지닌 사람이다.

그는 오랜 세월을 함께 하며 인연의 즐거움을 갖게 해준 사람이다. 대학시절 전공후배로서 우연히 얘기를 나눈 기억이 떠오른다. 유독 어려보이는 얼굴에 다정하게 느껴지는 모습을 지녔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외모에서 느껴지는 편안함과는 달리 사뭇 진지한 눈빛으로 날카롭게 사물을 직관하며 주변의 일상에 대한 철학적 사고가 깊은 후배임을 알게 되어 매우 관심 있게 그를 지켜보았다.

대학시절과 졸업 후 한 동안 안순금은 인간 속에서 찾아가는 삶의 모습에 관심을 보이며 작업을 해 나가고 있었다. 그 후 그의 그림 속에 자연이라는 모티브가 형성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창, 운주 등 시골 학교의 오랜 미술교사 생활이 그의 삶 속에 자연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 동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1997년 첫 개인전 작품들 속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얘기하며 그 속에서 삶의 유희를 그려내는 안순금의 따뜻하고 풍요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수묵이라는 전통적 재료를 그의 성품처럼 온화하게 풀어나가는 반면 아크릴이라는 강한 칼라재료를 서슴없이 함께 구사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안순금의 작업에는 수묵화의 정신적 철학의 묵상과 함께 현대적 조형감각의 대담한 화면의 구성 그리고 모노크롬한 색채표현의 절제된 언어가 숨겨져 있다.

3년 전 남편과 함께 영국으로 건너가 코벤트리 대학에서 다시 그림공부를 하기 위해 준비하던 안순금에게 다가왔던 벽은 영국이라는 나라의 교육과정에 동양화라는 회화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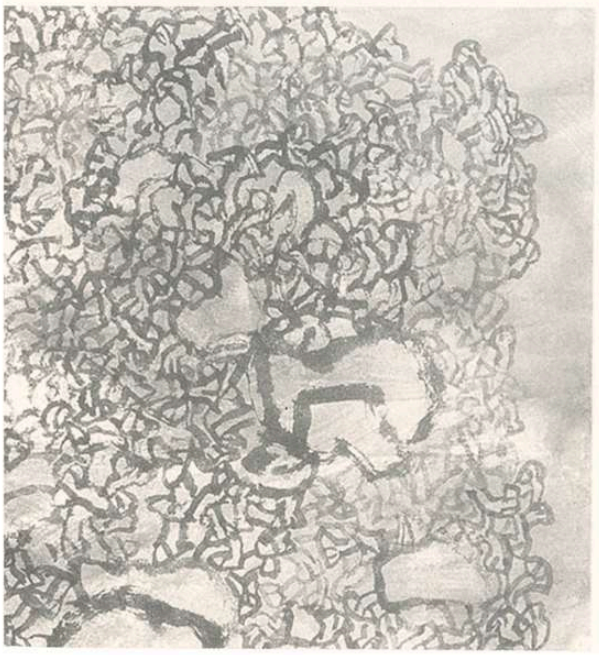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작업이 눈에 들어온다 하나는 유학시절 접근해 본 타일작업의 일상 시리즈이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작업해왔던 풍경의 새로운 조형적 접근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작업의 소재였다. 안순금은 그림을 통해 일기를 쓰고 있었다.

나도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알고 있는 상식이었지만 다시금 자존심이 상하는 문화적 충돌과 반발을 느꼈다. 어쩔 수 없이 서양화 아니 그쪽 문화로 회화를 전공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묵재료와 수성의 안료성질을 다루어온 그에게는 유화라는 안료에 대한 이질감과 재료의 물성에 익숙하지 못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야기하는 표정에서 그때 그의 당혹함과 힘겹게 작업해 나갔으리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조형감각과 새로운 표현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소중한 시간에 대한 추억이 묻어나는 뿌듯함도 읽을 수 있었다.

이번 우진문화센터의 기획전에서 보여준 안순금의 작품에는 3년 전 유학시절 수학했던 작품들이 일부 전시되어 있었다. 유학 초기 작품에는 서구적 조형구성과 재료의 학습과정을 차분하게 그려낸 인물군상이 눈에 띄었다. 그 옆쪽으로 여러 번 바탕의 덧칠한 화면위에 자유분방한 선과 터치를 살린 대담한 드로잉형식의 작품에 눈길이 갔다. 그 작품을 설명하는 그는 즐거운 표정이었다.

여러 번 작업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조적 심정이 되어 수묵화를 그리던 기분으로 붓질하여 그려 내렸는데 지도교수가 의외로 매우 큰 관심을 보이며 좋아했다는 기억을 떠올려 주었다. 나 또한 그 얘기에 '그렇고 말고' 어깨가 들썩여 졌다. 그들에게 붓의 생명력은 오랜 동안 모필의 운필을 통해 작업해오던 동양의 작가에게서 느낄 수 있는 신선함이었을 것이다. 거기에 힘을 얻은 안순금은 붓의 운동력이 살아있는 면과 선의 조형성이 엿보이는 작업을 통해 다소 안정적인 작업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작업이 눈에 들어온다. 하나는 유학시절 접근해 본 타일작업의 일상 시리즈이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작업해왔던 풍경의 새로운 조형적 접근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작업의 소재였다. 안순금은 그림을 통해 일기를 쓰고 있었다. 그림일기와 같은 타일그림을 통해 그의 일상을 읽을 수 있었고 그의 눈을 통해 천착되는 내면의 감성과 자연, 그리고 일상을 바라보는 안순금이라는 인간의 향기를 맛보는 재미를 갖게 하는 기분 좋은 전시회였다.



긴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는 순수함을 넉넉하게 간직해 오면서 잔잔한 파도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세계에 새로운 산소를 불어넣는 의지가 두터운 후배의 모습에 새삼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20년이 지난 어느 전시장에서 욕심 없이 그려낸 넉넉하면서도 꿈이 살아있는 그림 앞에 서 있는 안순금을 만나고 싶다. 여전히 따스한 일상 앞에 소중히 자신을 내려놓는 아름다운 사람을...

정미현 전북대학교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했다. 5회의 개인전과 1백여 회의 단체전 및 초대전에 참여했다. 현재 군산산북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일하고 있다.

자연의 노래, 생명의 노래

-엄기석의 『꿈의 정원』展에 부쳐-

· 기간 : 2005. 4. 27~5. 3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 5. 11~5. 20 『전주민촌아트센터』

신현식 (철학박사, 미술평론가)

엄기석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신비로움에 천착하여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온 작가이다. 의연한 소나무와 수수한 들꽃, 유유자적한 물고기와 청초한 연잎, 도도한 강물과 고즈넉한 산.... 그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자연의 물상들이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평범한 소재들을 작품의 세계로 형상화하는 방법은 예사롭지 않다. 그는 사물의 구도에 변형을 가함으로써 물상들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한다. 때로는 원심형으로, 때로는 화면의 중앙에 크로즈업 되는 형태로 순간순간 다양하게 배치함으로써 물상들에 감추어져 있던 새로운 면모들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중략-

사실 엄기석은 1993년의 첫 번째 개인전에서도 이미 새로운 표현방식을 선보인 바 있다. 그는 한국화의 전통적인 화법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묵의 새로운 조형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한편, 관례적인 화면의 포치법(布置法)을 포기한 대담한 작업들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금번 개인전에서 그는 한층 과감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작가 엄기석이 천착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이러한 사유는 동서를 막론하고 많은 사상가들의 주된 관심사였는데, 그는 전통적인 동양의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예술적 사유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국을 포함한 동양문화권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의 인간과 자연은 상호 원만하고 조화로운 관계에 있다는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동양철학의 근간을 이루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은 우주의 거대 생명에 융입(融入)하여 양자가 일체가 되면 결코 적대나 모순이 없고 언제 어디에서나 혼연히 같은 몸이 되어 함께 흘러간다. 즉 인간과 만물의 생명은 우주로부터 정신(心)을 얻어 그것을 각각 각자의 정신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물상들은 거대한 우주의 생명과 더불어 조화롭게 화해(和諧)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경지(美的 境界)에 다다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은 유가(儒家)에서도 발견된다. 유가는 하늘은 위대한 생명의 원천으로서 만물이 그로부터 비롯되며, 땅은 생명을 퍼뜨리어 만물을 그 덕택으로 형통하여 자라게 한다고 언급한다. 즉 땅은 하늘의 생명을 받들어 그 생명을 넓혀 주며 모든 것을 감싸고 빛나게 한다. 마치 인자한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생명을 보살펴 주는 것이다.
작가 엄기석이 흙이라는 대지의 바탕 위에 생동하는 만물들을 가득 채웠을 때 그가 염두에 둔 것은 바로 이처럼 영원히 반복하며 순환하는 생명의 유전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들에 구현된 세계는 창조적 생명이 가득 찬 작은 우주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게 차 있어서 옆으로도 통하고 위아래로도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조금도 막히거나 걸림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나는 내 이야기가 생수(生水)를 주는 복음이었으면 좋겠다. 사해(死海)를 소생시키는 생수이면 좋겠다. 아마도 지나친 욕심일 게다. 그러나 하얀 화선지 속에서 생명산(生命山)을 만나고, 흐르는 시내에 타락한 욕망을 씻어 내고, 고요를 깨트리는 새소리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꿈을 그리고 싶다. 다만 생명과의 교감을 통해서 그리는 내가 즐겁고, 욕심을 부려 감상자도 수면 속에 잠긴 생명의 이야기들 속에서 평강과 안식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족하다.

–1999. 10. 작업노트 중에서–



결국 엄기석은 『꿈의 정원』을 통해 관람자에게 창조적이고 이상적인 생명의 세계를 드러내 제시함으로써 "생수(生水)를 주는 복음"의 역할을 하려 하는 것이며, 그 정원의 향연에 참석하고 있는 감상자는 "생명과의 교감을 통해서" 천지와 넓게 조화를 이루는 한편, 모든 사람과도 공통의 정감을 공유하고 감응을 하며 만물과도 고루 깊이 교감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엄기석의 작품세계는 우주의 보편생명과 일체가 되어 언제 어디서든지 그것과 하나가 되어 흐르는 화해(和諧)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자연은 작가에게 생명의 고귀함을 일깨워주고, 작가는 자연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며, 감상자는 작품을 통하여 자연 및 작가와 다시금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조화롭고 도도한 화해의 정신을 말이다.

작업실탐방 – 서양화가 강정진

(예원예술대 회화과 교수)

엄기석 (한국전통문화고 한국회화과)



산동의 봄 / oil on canvas

아름다운 것들은 저마다 향기가 있다. 세상에 예쁜 꽃, 향기 나는 향 재료도 다양하다. 하지만 어떤 일과 사물에 변함없이 지내온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만 못하다. 서양화가 강정진 교수를 대할 때 그렇다. 청년시절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시절부터 익히 알고 있었던 서양화가 강정진 교수 작업실을 20만에 방문하는 길은 시집가는 새색시처럼 설레 이기만 했다. 20년 전 중앙동의 삐걱거리는 작업실에 들어섰을 때 작은 눈에서 느꼈던 그림에 대한 열정과 그 많은 작품들이 아직도 내 가슴에 감동으로 살아있다. 급한 일 때문에 서울에서 막 내려온 길이라고, 근년에 옮긴 작업실이 어수선하다며 부끄러워 손님맞이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뒤로 접고 우격다짐으로 찾아간 필자를 전주국립박물관 넘어 작업실 앞에서 손을 흔들며 해바라기 꽃처럼 활짝 핀 웃음으로 반긴다.

자연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의 작업실을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작품들의 숲이 창작의 열정의 그늘을 널찍하게 마련하여 방문객을 숨막히는 격정의 예술혼, 그 숙명적인 장인 정신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사온 후 정리할 시간이 없어 작품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그냥 지내고 있단다.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 누가 이 많은 작품을 가지고 있을까. 그는 잠이 없는 작가인 듯 하다.



작가는 말보다 작품의 양으로 말해야 한다는 격언은 아마도 작가 강정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격언일 것이다. 우리시대는 이런 작가를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는 주변의 일상적인 자연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작가다. 그의 작품은 사실성을 바탕으로 한 인상주의적 화풍에서 출발하고 있다. 화가 강정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옮기는 것일까? 사실주의에 바탕을 둔 인상주의적 작가일지라도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해석은 작가의 삶과 사상과 감정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기 마련이다. 무엇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전적으로 개개인의 삶의 태도나 사물을 해석하는 관점과 정신적인 복합성에 의해서 표현을 달리한다.자연을 관찰하고 해석하여 개별적인 자기만의 메시지를 농축하고 있는 견고한 형식미를 찾아낸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는 단순하게 재현적인 표현만을 추구하는 작가가 아니다.눈에 보이는 자연 그 넘어에 있는 피안의 세계 현대인들이 꿈에 동경하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의 그림그리기는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팔자라고 한다. 어찌보면 어눌하고 세련되지 않은, 하지만 진실성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속에는 화두처럼 그의 그림그리기가 내 눈에는 자연을 통한 세상읽기처럼 보인다.

관조적인 자연

작가 강정진의 풍경화의 특징은 미술평론가 신항섭의 글의 의하면 몇 가지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자연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빛과 음영의 대비를 조형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를 덧붙이자면 세부적인 수식을 억제함으로써 자연을 관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풍경화는 대부분이 원경이어서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기에 대상을 멀찍이 바라보는 시각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어는 특정 사물에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언제나 전체적인 시각에서 자연을 응시한다는 입자이다.

이런 시각에서 자연을 보는 방법은 당연히 보는 사람의 시야(정신적 측면까지를 포함하여)를 넓혀 준다. 그래서일까, 자연속의 어느 특정사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 아름다움보다는 산과 숲과 들 그리고 하늘의 구름 등의 이미지를 통해 자연 현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연이 내포하고 있는 고유의 정서적인 아름다움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의 그림은 숲을 통해 나무를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할까? "

그림은 세상 읽기이다

결국 작가 강정진은 눈에 보여지는 자연 대상을 통해서 세상과 화해하고 모든 사람을 폭넓게 수용하려는 도도한 사랑의 유토피아로 뛰어 들어가는 인간애 깊은 작가이다. 그가 추구하는 자연의 물상들 빛, 색채, 그리고 화폭 위에 그려진 자연의 여러 물상 이면에 감추어진 삶의 진정성이 그가 추구하는 세계이다. 그는 그림을 통해서 사람을 읽고 이해하며, 도도하게 세상과 하나 되며, 그리고 깊이 있게 넓이 있게 자연과 조화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산수화와 풍경화

이 승 훈

산수화는 글자 그대로 산과 물이 주제인 그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서양의 풍경화와 같다는 점은 자연 경치를 그린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자연을 대하는 정신성은 다르다. 따라서 동양의 산수화는 '산수'라는 말은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두고 한말이다.

먼저 서양의 풍경화에 대하여 알아보자. 서양의 풍경화는 인간이 자연을 개척하고 정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풍경을 뜻하는 영어의 '랜드스케이프'(landscape)도 경작되는 토지를 뜻하는 말이다. 인간의 의미가 담겨 있는 자연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자연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표현면에서도 다르다. 우선 명암이 서양에서는 빛에 의해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이 있다. (서양미술사, 박우찬, 이룸, 2004) 동양에서는 그림자와 빛의 밝은 곳을 처리하는 점이 없다. 음양에 의해 표현 되는 것이다.

17세기 중반 이탈리아 북부 및 북 유럽에서 서민적 사실주의 미술이 나타났다. 풍경화의 최초 전성기는 네덜란드에서부터이다. 자유로운 시민 국가를 수립한 네덜란드가 풍경화를 꽃 피우게 한 것이다. 네덜란드 풍경화가들은 인물이 없이도 만족스러운 그림이 되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최초의 화가들이다. 메인데르트 호베마는 17세기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풍경 화가이다. 그는 시골길, 농가, 물방앗간 등 주로 주변의 풍경을 그렸다. 그의 대표작은 미텔하르니스의 마을길이다. 영국 수집가들에게 애호를 받았으며 영국의 풍경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두 번째 전성기는 산업혁명을 치른 영국에서 꽃 피운 것이다. 산업화 속에서 시골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대자연에서 휴식을 구하고 평안을 찾고자 다시 원초적 자연을 갈망하였다. 영국의 풍경화가는 컨스터블이다. 컨스터블의 최고 걸작은 '건초수레'이다. 베르메르의 델프트 풍경은 직접 현지 장소에 나가서 그림을 그렸다. 광선의 대기 표현의 대가답게 대기가 충만한 델프트 항구의 고요한 모습을 장엄하게 묘사했다. 조금은 이상화하여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일으키는 작품이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풍경화를 깊이 연구한 터너는 '빛과 대기로 가득찬 자연'에 매력을 느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풍경과 안개 낀 템즈강을 주로 그렸다. (미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들, 이명옥, 다빈치, 2004)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영국의 풍경화에 프랑스 화상 로스미스는 그림을 사들이고 파리 살롱전에 출품했다. 프랑스 예술가와 관객은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 화가들이 야외로 나가게 되고 인상파의 태동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모네의 해돋이 인상이 비평가에 의해서 인상파로 명명되면서 순간의 느낌과 감각을 중시했다. 자세한 묘사가 생략 된 것이다. 모네는 정원을 일본식으로 꾸미고 수련 시리즈를 탄생 시켰다. 일본식 정원이 한국과 중국의 정원과 같은 것이다. 모네가 동양정신 같은 이미지를 찾아 나선 것이다. 순간의 감흥을 즉흥적으로 표현 했다. 이후 고갱과 고흐, 세잔 등은 근대의 풍경화의 눈을 제시 제시했다. 20세기는 더 나아가 대지 미술은 캔버스가 자연인 것이다. 사막과 대초원, 바다, 목장 등이 캔버스가 된 것이다.

동양의 산수화는 뜻이 형보다 먼저 인듯하다. 왕유가 저술한 화론으로, 두 편이 현존한다. '산수결'과 '산수론'이다. "대저, 화도 가운데서 수묵을 가장 상품으로 삼은 것은 자연의 성에서 비롯하여 조화의 공을 이룬 때문이다.", "무릇 산수를 그릴 때에는 뜻이 붓보다 먼저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사훈의 산수화는 금벽(金碧)이 휘황찬란한 자수기법으로 청록채색과 세밀한 필조의 산수화법을 전해주었다. (중국 역대 명화가선, 주천추/임홍빈역, 열화당, 1979) 한국에서도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무위자연의 동양사상을 담고 있다. 진경산수화로 불리는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와 '인왕제색도'는 실경으로 그려지긴 했지만 그 끝은 자연에 합일하는 뜻이 들어있다. 산수화의 정신은 단순히 자연의 경치를 묘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바라는 동양적인 자연관에 의해 표현하였다. 강세황의 '영통동구도'는 이질적 구도와 표현법으로 주목을 받아온 작품이다. 동양과 서양의 이질적인 화법을 한 화면에 접목시켜 표현 했다. 근대에는 소정 변관식, 청전 이상범의 산수화가 실경을 바탕에 두고 있으면서 동양적인 인간과 자연 합일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근대 6대 화가와 현대의 산수화가들이 지향하는 바가 실경을 그린다고 하지만 동양의 세계관을 저버리고 있지 않다.

동양의 산수화에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 현상의 재현이 아니라 현상의 경험이다. 오귀스탱 베르크는, 서양화에 있어서의 객관화 작용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데카르트적인 이원론에 대립하여, 산수화가 경험의 현실성에 입각해 있으면서 동시에 내면 과정을 통해 실현 되는 것임을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여기에는 (산수화), 이원적 분리가 없다. 즉 주관이 객관을 보는, 데카르트적 직관, 보는 눈이 없다. 화가는 풍경을 자신의 마음속에 지닌다."

베르크의 설명으로는 산수화는 시각적 인상을 객관적으로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풍경이 작가의 심리 작용에 개입함에 따라, 말하자면 안으로부터 풍경을 창조해 내는 것이다.(풍경과 마음, 김우창, 생각의 나무, 2005)

5세기 종병은 "방의 벽에 자신의 보다 젊은 시절의 여행에서 기억되는 산수를 그렸는데, 그것은 산하를 방랑하면서 마음에 일었던 정신의 감흥을 다시 체험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곽희도 비슷한 생각을 하였다.

산수화는 객관적 존재보다는 심리적 체험으로서 유토피아와 행복을 추구하였다. 화가나 감상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가지고 산수화에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심리적 변화 등을 놓친 그림을 변론하기 싫다.

조선말기 문인화에 대한 고찰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이 철 규



山水圖(8曲병풍中 1폭) 「許維」

文人畵는 동양화에 있어서 양식개념 보다는 정신이념을 담은 이지적인 사상을 구성하면서 성립된 예술이다. 글자 그대로 학식과 인격이 높은 문인 사대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예술이기 때문에 그 내면에 내재된 정신적 세계란 매우 심오한 것이다. 문인화는 그 발생시기부터 현실인생의 온갖 부자유의 속박에서 탈피하려는 신선합일적(神仙合一的) 사상의 노장(老莊)사상과 선(禪)사상이라는 일종의 자연미관을 강조하며 '묘오(妙悟)'의 경지에서 대자연에 귀의하려는 속세초월사상을 형성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합일된 경지, 즉 자연의 미를 인격화하려는 고차원적인 정신성을 추구하였다. 문인화의 발생이 고차원적인 정신성의 추구로 인한 사의(寫意)적인 상징주의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문인화는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화면에 내재된 작가의 정신을 제일주의로 삼았던 것이다. 이는 운둔적인 老莊思想에 근거를 둔 탈속(脫俗), 자오(自娛)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詩, 畵와 함께 작가의 정신을 나타내는 문인화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었던 바, 이로부터 詩, 書, 畵, 一致思想이 문인화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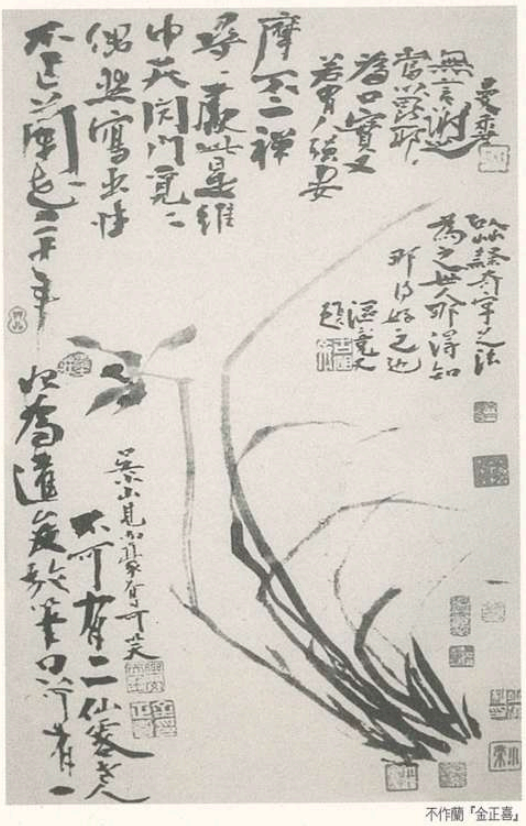
조선말기 문인화의 사상적 배경이 된 세 가지 요소를 간략하게 언급해 보자면, 먼저 "道"에서 시작점을 찾아야 될 것 같다. 자신과 우주의 근원은 바로 "道"이며, 도는 天地自然의 造化의 이법(理法)이다. 그 天地自然에 순응하여 그에 合一하고자 하는 동양문화권 (특히 중국문화권) 에서는 회화의 출발이 寫意的인 象徵主義로부터 비롯한다. 이로 말미암아 동양화는 애초에 그 事實性의 문제보다 화면에 깃든 작가의 情神이 항상 제일주의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작가의 정신이 제일주의인 의미를 가지게 된 배경에는 특히 중국에 있어서 삼국시대 (AD : 3세기 초) 와 육조시대의 사상적 전환기를 산 지식인들과 당대 수묵산수화가들에 의해서 회화가 은둔적 老莊思想과 고차적 정신일치의 禪思想에 입각한 탈속(脫俗), 자오(自吳)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時,書와 함께 이들의 심회를 표출하는 예술분야로 등장함으로써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로부터 송대에는 소동파(蘇東坡)에 의한 詩,書,畵 一致思想이 중국 문인화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동양예술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첫째, 선사상(禪思想)은 중국에 선교사상이 최초로 전해 진 것은 520~526년간에 보시달마(菩是達磨)에 의해서이다. 이때의 禪思想은 자가 자신만을 위한 독선적 숙정의 경지를 구하는 것이 아닌 널리 중생을 위한 전미개오(轉迷開悟)에 힘을 쓰는 이타적이고 능동적인 것이었다. 선사상이 중국 회화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 한 것은 당대 수묵산수화의 등장부터이다. 당대 수묵산수화의 배경에는 선종(禪宗)의 정신과 긴밀한 정신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데, 선종과 회화와의 본질적 일치는 "묘오(妙悟)"라 할 수 있다. "묘오"의 경지란 禪이나 詩와 같이 화가의 수양적 소양을 말한다. 이러한 "묘오"의 경계란 결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각고의 정신으로 참선하여 일체의 망상과 잡념을 떨쳐버리고 초월적인 무아(無我)의 세계에 직입해야 되는 것이며, "묘오"의 고차적 체험은 특별히 禪과 畵의 일치된 경계라 할 수 있다. 선가사상에 바탕을 둔 "묘오"의 경지에서 대자연에 귀의 하려는 속세초월사상(俗世超越思想)은 한말에서 唐, 兩宋에 이르러 최고로 발달되어 유교학자들이 이 선종의 초월사상을 받아 들였다. 선종의 초월사상이란 첫째로 惡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속세를 초월하고, 둘째는 대자연의 세계를 깨닫기 위하여 초월하는 것인데, 이것이 선종사상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선종사상에 바탕을 둔 초월사상은 송대 문인화가들의 유교적 초월과 결합하여, 형식미가 가미된 詩, 書, 畵 一致思想이 나왔으며 원말사대가, 명말청초의 석계(石溪), 팔대산인(八大山人), 석도(石濤)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선사상이 중국문인화의 사상에 근저가 되었다고 볼 때 중국 문인화를 모범으로 삼았던 조선말기의 문인화에도 그 영향이 있었음을 역급해 볼 수 있다.

둘째, 漢대 중국 압세주의(壓世主義)는 3~4세기 육조시대에 이르러서는 도가적 청염(淸炎)과 허무(虛無), 무위(無爲)사상의 영향으로 문인 사대부 간에는 자연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속세를 초월한 일기(逸氣)사상이 널리 일어나게 되었고, 유교사상과 더불어 그 근간사상으로서 문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도가의 대표적 사상가로는 노자(老子)와 장자(莊子)가 있다. 노자와 장자가 내세운 최고개념은 "도(道)"이다. 道의 목적을 노자는 "무위(無爲)"에, 장자는 "유(遊)"에 두고 있다.

노자의 無爲는 '활동이 없는 것' 혹은 '비 활동'으로 해석되지만 전혀 활동이 없는 상태 또는 아무것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人爲)성, 자의(恣意)성 없는 활동을 의미한다. 즉 인간전신의 방임상태, 또는 정신의 진정한 자유해방(自由解放)의 상태에서 지극히 즐거움을 보았고, 특히 예술에 있어서 인위로 부터의 초월을 요구하는 장자의 "遊"사상과 같은 경지이다. 이런 면에서 莊子의 무위자연(無爲自然)설은 문인화에 있어서도 가장 적합한 이론이라 볼 수 있다. 즉 인위성, 자의성이 없는 활동을 근본으로 하는 무위나, 어떤 간섭이나 주행자(主幸者)가 필요 없고 오직 작가의 독창성만을 중요시 하는 회화나 그 내면에 흐르는 정신적 사상은 모두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不作閣『金正喜』

莊子思想의 중심은 그 목적이 현실적 고통과 온갖 부자유로부터의 정신적 해방을 구하는 데 있다. 장자는 그 자유해방의 경계를 상징적으로 "遊"자를 써서 표현하고 있다. "유"자의 의미를 보면 속박과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및 유희를 뜻한다. 장자는 첫째 장 "소요유(逍遙遊)"에서 현실생활의 온갖 부자유의 속박에서 해방된 인간 생명의 넘치는 자유해방에서 비익(飛翊)을 대붕(大鵬)의 逍遙에 비유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붕도 바람을 의지하여야 만 비상을 하듯이 진정한 의미에선 逍遙遊라 할 수 없다 하였다. 즉 逍遙遊란 어떠한 집착과 얽힘도 물어 없애고 어디에도 막힘이 없이 유유자적하게 노닐 수 있는 정신의 자율을 지칭하는 것이다. 장자의 정신은 자신을 초월하여 완전한 세계에서 인생의 예술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셋째 송대의 詩, 書, 畵 一致思想이다. 북송 때에는 정신주의 발달로 작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시 되었다. "唐詩宋畵"라 할 만 큼 북송회화는 文學化의 두드러진 경향이 특색이며 문학은 繪?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송 대 회화의 제시(題詩)와 제화(題畵)는 이미 화면의 일부를 차지하였고 화면의 미적 가치를 한층 더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버렸다. 이에 대표적 인물로는 소동파(蘇東坡)가 있는데 그는 예술에 있어서 "상리(常理)"를 주장하였다. 상리라는 것은 형태가 없는 것이라고 멋대로 그려서는 않되며 강한 정신성에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리는 장자의 '천리(天理)'와 통하며, 사혁의 '기운생동(氣韻生動)'의 氣韻과 통한다. 다시 말해 자연 안에 내재된 정신의 본질을 그리는 것이며, 형사(形似)만 구하지 않고 그 形似를 뛰어넘어 그 내재된 정신의 본질을 그리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시화를 하나로 보는 데에는 "그림을 논함에 形似를 주장한다면 그 소견은 어린이와 다를 것 없고, 시를 짓는데 꼭 어떤 형식을 우긴다면 이 또한 시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시는 그림과 본래 일치한 것이니 그 공교함은 천기(天機)를 얻어야 하고 그 기운은 청신(淸新)하리로다."하였다.

그의 이러한 詩, 畵 一致사상은 송 대 이래 중국문인화의 기본정신이 되었고 동시에 동양화단의 특징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전래되어 조선전기의 文人士大夫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용되었고, 조선 말기에 그 꽃을 피웠다 할 수 있다.

조선말기 문인화는 원당(院堂) 김정희(金正喜)로 대변 될 수 있는데, 그는 당시 문인 사대부의 대표격 인물로서 문자향(文字香), 書卷氣(서권기)같은 강한 정신성을 강조하면서 극도의 문인취미를 추구하였다. 단순한 문인화가 아닌 고도의 교양과 날카로운 식별력을 가진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이면미의 세계를 필묵으로 표출한다는 것이었다. 즉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는 작가의 인격에 의해 결정 된다는 것이다. 문인적 교양이 높을수록 예술심경의 표현 또한 풍부해질 것이며, 결국 이로써 학문적 교양은 인격과 성격에 귀결되고 문인 예술론상 불가결한 요소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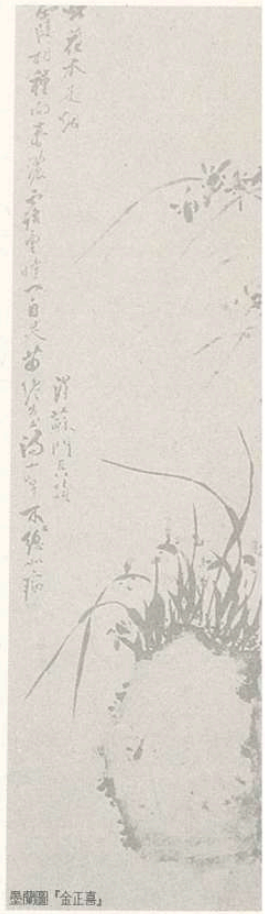
먼저 조선 말기에 문인화가 성행하게 된 그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 소위 김정희 일파라 일컫는 조선말기 대표적 문인화가들 에 대해 살펴보자.

그 시대적 배경으로는 먼저 청조문화의 급속한 유입과 실학사상으로 인한 개화사상을 들 수 있다. 실학으로 인한 개화세력이 점차 성장하여 종래의 엄격한 유교적 신분계급의 격차가 완화 되면서 평민문학이 융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중인계급의 문화적, 학문적 활동이 활기를 띠어 서화를 즐기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19세기에는 이와 같이 중인출신들이 신분상승을 위해 몸부림치던 시기인데, 이들은 신분상승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양반들의 사고나 생활방식을 추구하였다. 특히 중인출신 화가들은 사대주의사상과 남종문인화 지상주의자 이었던 원당 김정희 주위를 맴돌며, 그의 회화세계를 추종하였다. 19세기 회화를 주도 했던 세력이 바로 김정희를 중심으로 한 문인사대부와 중인출신이었고, 중인출신들이 지배적이었다.

정치적 상황으로는 조선후기의 문화발전에 얼마간 진보적 역할을 했던 노론집권층이 주변정세의 위협과 함께 국내적으로 봉건적 질서의 와해 위기 속에서 집권보장을 위한 보수화 추세에 의해 문인화 취향 일변도로 경직화 되었고, 신분에 의해 역할이 수직이분 된 봉건적 화단 구조에서 기능을 담당했던 화원들이 역사변혁의 주체의식 없이 이념주도층의 취향변화에 순응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도 있다.

조선말기 대표적 중인출신 문인화가로는 난을 잘 그렸던 수월헌(水月軒) 임희지(林熙之)와 오경윤의 아들로서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을 편찬한 吳世昌(오세창)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김정희를 추종한 소치(小癡) 허유(許維)와 고람(古藍) 전기(田琦), 우봉 (又峰)조희룡(趙熙龍) 등이 남종 문인화의 대표격이라 볼 수 있다.

김정희 일파에 의해 寫意를 존중하고 形似를 경시하는 남종문인화는 크게 유행하고 발전하였지만, 조선후기의 진경산수와 풍속화의 터전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김정희일파가 추구하였던 예술이 선비의 고고한 마음, 즉 정신성의 표출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형사(形似)를 중요시 않고 사의(寫意)를 존중하였던 조선말기의 문인화는 진정한 의미의 문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墨蘭圖 「金正喜」

한지, 그 기원과 발전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

1. 종이의 기원

『동관한기(東觀漢記)』를 바탕으로 한 『후한서(後漢書)』에 보면, 기원후 105년 채륜(蔡倫)이 중국 섬서성에서 종이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쓰여 있다. 그래서 채륜이 최초의 종이 발명자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1957년 서안(西安) 파교(?橋)지방 서한묘(西漢墓, 西漢武帝, BC 141~87)에서 마섬유 종이 9매가 출토되면서, 채륜 이전에 이미 종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반길성(潘吉星)은 파교에서 출토된 종이가 채륜의 종이보다 최소한 200여년 앞선 것이라 하였다. 그 결과 채륜을 종이의 발명가로 보는 시각과, 이와 달리 기원전 2세기경에 이미 종이가 발명되었고 채륜은 이전의 종이를 쓰기 좋게 개량한 자라는 두 가지 시각이 병치하고 있다.

채륜 이전에 종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종이가 서사재료(書寫材料)로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채륜의 종이 이후이다. 채륜 이전의 종이는 너무 거칠어 글씨를 쓰기에는 부적합하였다. 채륜 이전 종이라고 출토된 것들은 서사재료가 아니라 포장지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방마탄지에 지도가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 채륜 전에는 서사재료로 종이가 아니라 목죽편(木竹片)과 견(絹)이 주로 쓰였다. 즉 채륜이 종이를 발명했든, 개량했든 이 시대에 이르러 종이가 서사재료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고 3세기에 이르러서 다른 서사재료를 거의 대치하게 되었다.

2. 종이 제조업의 발전

우리나라에 제지술이 언제 전래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현재까지 찾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서기(日本書記)』에 고구려 승 담징이 영양왕 21년(610)에 종이와 먹을 만드는 기술을 일본에 전했다는 기록만이 전한다. 따라서 적어도 610년 이전에는 제지술이 우리나라에 전해졌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중국에 채후지(蔡侯紙)가 만들어져 종이가 널리 쓰이게 된 2세기 이후 우리나라에 제지술이 전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닥나무'의 어원, 제지 방법 등을 같이 놓고 볼 때 우리나라에 제지술이 전래된 것은 늦어도 2세기초부터 4세기 사이 삼국시대일 것으로 추론된다.

종이원료는 우리나라에 제지술이 처음 전래되던 시기의 경우 마(麻)와 저(楮)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다가 7세기 전후에 이르러 닥나무(楮)가 우리 종이의 주 원료로 사용되었으며, 또 이때부터 기술면에서도 중국의 제지술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기술로 종이를 제조하게 되는 것 같다. 즉 7세기초에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기호에 맞는 적당한 원료를 사용하였고 제조법도 정립되었으며, 품질도 제고되는 등 중국과 일본에 비교하여 그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지배층들의 서사용(書寫用) 이외에 일반백성들의 생활용품으로 종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통일신라후기 이후 고려시대부터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제지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에 이르러서이다. 고려시대에는 제지술에 관한 기록이 더러 있고, 제지업이 국가사업으로 이행되었다. 고려정부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종이를 농민들에게 공납을 받는 것과 함께 특수집단인 '소(所)'에서 양질의 종이를 생산토록 하였다. 중국인들이 제일의 종이로 선호하는 고려지는 이 때 형성된 것이다.

조선건국후에는 한양에 조지서(造紙署)라는 기구를 설치해 종이생산을 담당케 하였다. 조선은 남원, 전주 등에서 수급되던, 중국과의 외교문서 등에 쓰이던 양질의 종이가 한계를 보이자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지서라는 관서를 두어 종이를 생산했던 것이다. 한편 지방에는 지소(紙所)를 두고 종이를 생산 수급토록 하였다. 지방 장인의 경우 전체 3,511명 중 지장이 6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조선은 건국 후 중앙의 조지서와 지방의 지소를 통해 종이을 공급하는 관영수공업형태로 자리하였으며, 조선후기 공물(貢物)의 수급방식이 공인(貢人)에 의한 공물대납제(貢物代納制)로 바뀌면서 지소 등이 쇠퇴하고 사찰 등 민간제지업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조선후기 종이의 질이 일정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3. 천하제일의 종이 고려지

우리 종이는 고려지(高麗紙), 혹은 계림지(鷄林紙)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알려졌다. 계림지란 명칭은 신라에서 만들어진 것에서 비롯된 이름이고, 고려지는 고려에서 제조된 종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이런 명칭과 함께 우리종이는 백지를 가다듬었다는 뜻으로 보이는 백추지(白?紙), 거울같이 매끄럽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경면지(鏡面紙), 다듬이질을 하여 마치 비단결 같다는 의미의 견지(繭紙) 등으로도 불렸다.

우리 종이 한지는 고려시대 이래 그 뛰어난 품질로 인해 대표적인 중국 수출품이요 조공품이었다. 중국에서 우리 종이가 고려지란 이름으로 많이 쓰였고, 또 지금까지도 고려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그만큼 고려의 종이가 뛰어났음을 의미 하며, 이때 이후 제지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중국에 우리 종이의 위상을 굳건히 구축했음을 말해 준다.

명나라 심덕부는 당시 중국에 유통되고 있는 종이 중에서 고려지가 제일이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진나라 왕희지가 그 유명한 난정서(蘭亭序)를 고려지에 썼다고 한다. 청나라 때 곡응태는 '고려종이는 솜과 누에고치로 만들었는데 비단과 같이 희고 질기다' 라고 하였으며, 명나라 때 고렴은 '고려지가 하얀색이어서 비단과 같다' 라고 하였다. 서긍은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고려지가 도침을 해서 모두 윤택이 난다" 라고 하였다.

고려지가 유명했던 것은 질기고 단단하며 반들반들 윤택이 났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이희경은 "우리나라 종이는 성질이 본시 단단하고 질겨서 창문을 바르면 능히 오래 가며, 돈과 같은 두꺼운 종이는 기름칠을 하여 방 가운데 깔고 앉으면 물을 엎질러도 물이 묻지 않는다. 이렇기에 부귀한 집에서는 이것을 방석보다 많이 쓴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종이는 천하에서 최고" 라고 하였다. 북송(北宋) 진유 또한 "고려지는 촉(蜀) 중의 냉금(冷金)과 같이 단단하고 아름답다" 라고 하였다. 일본의 서지학자 팔목(八木)은 '신라의 백추지는 다른 어떤 종이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종이로 중국에서도 제일이다' 라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 종이 한지는 비단처럼 반들반들하고 질기며 단단했다. 이런 특성은 순닥을 원료로 해서 장섬유를 쓴데 기인한 것이었다. 즉 닥을 원료로 해서 섬유를 자르지 않고 방망이로 두들겨 고해하여 종이를 제조함으로써 우리 종이는 마치 비단 같았고, 그 결과 천하제일의 명품으로 자리하였던 것이다.

세계서예비엔날레-가을 묵향의 중심에 서서

송유근

가을의 전주가 좋다.
각종 축제와 풍성한 예술행사 ! 그리고 서예
전주의 문화적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계절이다.
그 중 묵향에 빠진 전주의 모습은 언제나 기다려진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보다도 가슴 설레는 세계의 문자축제 여행이다
정신없이 바쁜 일상에 잠깐의 예술나들이!
어색하기도 하지만 짐짓 으쓱해지는 마음에
축제기간동안 인상 깊었던 몇 가지 행사를 스케치해본다

첫째는 소리문화전당 전시장을 들어서는 길목에 늘어선 수많은 깃발의 이채로움이다. 이전의 서예비엔날레행사에서는 보지 못했다. 야외마당에서 푸른 가을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진 서예깃발의 모습은 축제의 분위기와 신명을 부르고 있다. 전시장에 있는 2005명의 서예가가 참여해 만든 대형작품과 마찬가지로 벽에 걸린 글씨보다 친근감을 준다.

둘째는 탁본체험, 영상서예체험, 나도 서예가, 경품추첨 등의 재미있는 체험활동이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와서 직접 탁본해보고 글씨도 쓰고 하는 모습에 서예의 대중화가 보이는 것만 같다. 개인적으로는 은근히 경품추첨에 관심이 있었다. 관람객들에게 유명서예가들의 작품을 1주일에 2작품씩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는 거였는데 매주 일요일 나는 기대에 부풀곤 했다.

셋째는 유명서예가들과의 만남이다. 개막식후 이루어진 비엔날레공모전수상자들의 시범휘호와 '작가와의 만남' 등의 행사는 내가 가장 기대했던 행사이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스라엘, 필리핀 등 세계의 서예인 들이 한자리에서 직접 휘호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전주의 한지에 푸른 눈의 외국인이 정성을 다해 휘호하는 모습이 정겹다. 또한 토요일 오후라 참가할 수 있었던 우송 김영삼, 학정 이돈흥 선생과의 만남에서 두 분의 문인화 및 서예에 대한 열정의 모습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마지막으로 신선한 서예작품과의 만남이다. 서화동행전이나 주제가 있는 병풍전, 기념공모전등의 작품이 보통의 서예전시회에서 보아왔던 작품보다 바라보기가 한결 가볍고 시원하다. 작품규격 및 형식이 다양하고 재미있는 작품이 많아 집 거실에 걸어두고 싶은 작품이 많았다. 세태를 풍자한 메시지도 통쾌하려니와 서예와 회화의 어우러짐 등은 이 시대정신을 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전시장에 학생과 일반인들의 감상을 도와줄 안내인이 있었으면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는가? 전혀 서예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부담감 없이 들러 한 가지라도 얻어가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이다. 탁본이나 글씨 체험장도 더 넓었으면 좋겠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유명서예인 들의 작업모습도 마음껏 지켜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가족끼리 와서 그냥 놀다 갈 수 있는 편안한 공간, 그리고 늘 서예작품을 대할 수 있는 상설전시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가 일상 속의 서예를, 예술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문화인으로서의 품격이 높아지길 소망한다.

솔직히 지금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지나갈수록 우리는 항상 중요한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사는 법이다. 부족한 무엇인가를 우리는 '느림의 감동'을 주는 서예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질펀한 한마당의 서예잔치, 서예비엔날레는 그것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고 있지 않은가?
아! 나는 묵향 가득한 전주가 좋다.

2005년 10월 30일(일요일) 서예비엔날레전시장에서





가을 끝자락에 도립 미술관을 찾아서

엄 기 석

전북 도민의 예술에 대한 깊은 염원 속에서 개관한지 벌써 한 돌이 지난 전북도립미술관에서 뜻 깊은 테마를 가진 두 개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2005 소장품〉전이라는 전시와 〈제 27회 예술원 미술전〉이다. 개관한지 한 돌 밖에 안 된 전북도립미술관에는 198점의 작품이 수집되었다 한다.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작품을 수집한 미술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린다. 이들 모두 개관 이후에 심사숙고하여 구입하거나 기증받거나 관리전환을 받은 작품 중에서 100여점을 엄선하여 전시하고 있다.

제 27회 예술원 미술전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예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우리나라 예술가의 대표기관이다. 1954년 7월 17일 고희동 등 25명의 회원으로 개원하여 현재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무용, 4개 분과에 7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 있는 예술가 대표 단체이다.

〈2005 소장품〉 전에는 그 동안 〈엄뫼, 모악〉전 〈전북미술의 맥〉전 〈전북 서예의 역사의 동향〉전 등의 미술관 전시와 도 청사 갤러리에서 열린〈전북서화 일람〉전과 〈전북산하〉전 1.2부 등에서 이미 소개된 작품들도 적지 않으나, 〈2005소장품〉전이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전시를 구성하여 도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수집한 작품 가운데 채용신의 권계도, 최석환의 묵포도도, 이용우의 산수도, 송성용의 묵죽도8곡병, 추광신의 황진지, 이삼만의 정기이발, 김현철의 보리밭, 최대섭의 흔적, 한애규의 앉아있는 여인, 나종희의 들불, 천칠봉의 토기, 박민평의 해바라기 등 1백여 점이 전시되어 아름다운 모악산 풍경과 더불어 작가의 치열한 예술 혼들이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으로 가슴에 점점이 수놓고 있다.

소장품들을 작품성과 역사성을 고려하여 수집하는 일을 공공 미술관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이러한 작품들을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고 정리하여 일반 관람객들에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전북도립미술관은 향후 소장품을 수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수집 노선 및 방향을 견지 하려고 한단다. 첫째, '지역 미술의 정체성을 추구함' 이다. 우리 고장에서 가장 찬란하게 꽃피웠던 서화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문인화 · 서예 · 서양화를 포괄하는 서화 작품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에 일정 정도 특화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다음으로 지역의 대표적 작고 작가, 원로 작가, 중견 작가, 청년 작가의 대표작을 화업 전반의 발전을 보여주는 맥락 하에서 순차적으로 수집하여 전시와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외 작가의 작품 중에서도 우리 고장의 풍광, 지역 문화 등을 주제나 소재로 한 작품 등을 수집하여 보다 넓은 지평을 확보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미술의 보편성을 추구함' 이다. 지역성을 초월한 국내외의 중요 작가의 작품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선별 수집하여 교육적 전시 자료로 활용하여 미술관을 외부세계를 향한 창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미술의 동향을 소개 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이번 전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제 27회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은 우리나라 최고의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나라 미술계 최고 원로인 예술원 회원들의 최근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 서예, 공예, 건축부분에 22명이 참여, 모두 43점을 선보이고 있다.

출품작가는 한국화 5명 (고 장우성, 박노수, 권영우, 민경갑, 이종상), 서양화 7명(이준, 권옥연,문학진, 이대원, 오승우, 손동진, 윤명로), 조각 4명(백문기, 전뢰진, 윤영자, 최종태), 서예(김충현, 조수호, 이수덕), 공예2명(권순형, 이신자), 건축 1명(이광노)이다.

특히, 한국문인화의 대가이자 한국화단의 사표인 고 장우성 회원의 미공개 작품이었던 한일, 두루미 연가 등 2점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원광대교수를 역임한 민경갑선생을 포함, 현 예술원 회장이자 서양화의 기하학적 기법의 작가인 이준, 대리석에 무한한 설화적 동심적 조형세계를 창조하는 석조작가의 대가인 전뢰진, 전통과 현대의 감성을 조화시킨 우리나라 섬유미술계의 1세대인 이신자, 입체주의적인 콜라주 기법을 이용한 문학진, 원형상 씨리즈을 통해서 동양의 산수를 새롭게 해석하는 이종상, 안견의 무릉도원의 산수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윤명로, 종교적 영원성 단순한 표정으로 표현하는 최종태 등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예술원 관계자는 "예술원 미술분과회원의 평균연령이 81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원들이 왕성한 창작의욕으로 최근작품을 출품, 평생 한 분야에 바쳐진 회원들의 성실한 작품세계와 뜨거운 창작 열정, 그리고 예술적 성과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소개했다.

이번 전시는 2005.11.9 -11.30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지역 미술의 진수와 전통성을 찾아보고 우리 미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전북도립미술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18박 19일 긴 여정 짧은 여행

이 진 숙

'엄마 나 할말 있는데'
딸아이가 2주간의 유럽여행과 2주간의 폴란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했던 말이다.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준다. 그 속에는 웬 남자와 함께 다정한 모습의 딸이 있다.
'누군데'
'남자 친구'
이렇게 시작된 딸의 국제 연애는 6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동안 한국과 핀란드 그리고 미국과 핀란드를 오가며 어느 누구보다 비싼 사랑을 한 것이다. 딸의 졸업 그리고 취직 이어 작년에 결혼을 했다.
작년에 시부모님의 한국나들이가 있었다. 거기에 대한 답례(?)로 이번에는 우리가 핀란드 여행을 하게 된 셈이다. 마침 남편이 퇴직을 하고 오랜 기간 나들이를 할 수가 있었으니 내인생 최대의 보너스를 탄 기분이다.
'흠흠 이 맑은 공기' 우리 일행은 헬싱키 항구에서 이내 코를 벌름거리면서 숨을 들이마셨다. 불과 일주일 정도 머물다 발틱 3국 여행을 위해서 약 일주일을 떠나있었을 뿐인데.....
구름이 많이 끼었다. 그래도 걱정은 없다. 버스가 공항까지 무사히 데려다 줄 것이고 그 다음은 비행기가 나를 그곳까지 운반 할 테니까. 공항은 언제나 붐빈다. 특히 방학 땐...
딸아이는 언제나 처럼 느긋한 성격대로 늦게 공항에 도착하였다. 출국신고서를 쓰고 화물을 부치고 면세구역을 돌아다니면서 화려하고 많은 상품들에 감탄을 하면서 눈을 즐겁게 하고 있었다. 드디어 10시간에 걸친 비행이 시작되었다. 공항직원의 배려로 팔자에 없는 비즈니스클래스를 타고 가면서 온갖 호사를 누렸다. 푸랑크푸르트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2시간 30분을 달려 헬싱키공항에 도착하였다.
새벽 1시30분쯤 헬싱키공항에 도착을 하였다. 놀랍게도 어스름한 어둠이 깔렸을 뿐이다. 말로만 듣던 白夜다.
숙소에 도착을 하여 한국에서부터 가지고 온 소주로 여독을 풀고 이내 깊은 잠에 빠졌다.
미리 가 있던 사위와 사돈 내외가 늦은 시간인데도 마중을 나와 있었다. 처음 보는 도시의 야경은 무척 아름다웠다. 숙소에는 사돈내외가 마련한 온갖 먹을 거리들이 냉장고에 가득하였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은 모양이다. 사돈이 온다니 마음을 쓴 것이다.





본격적인 헬싱키여행을 시작하였다. 중세를 연상케하는 뽀르보 마을 그리고 그곳에서 꼭 먹어봐야 한다는 키스라는 유명한 초콜렛,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마신 맥주, 첫날은 모든 것이 신기하였다. 빙하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구멍은 정말 신기했다. 얼음이 떨어지면서 돌과 회오리가 만나 만들어진 것이란다. 작게는 주먹만한 것에서 큰 것은 깊이가 10M나 되는 것도 있었다.
시골의 작은 마을(옛날 전통가옥이 잘 보존된)에 갔는데 우리네 시골마을과는 많은 것이 달랐지만 그래도 시골은 세계 어느 곳이나 같은 것 같다. 농사지을 수 있는 갖가지 물건들 그리고 시골의 살림살이 등등이 그렇다.

밤9시가 훨씬 넘었는데도 해가 하늘에 둥둥 떠있다. 적응이 안된다. 아마 북극에 가까운 곳이어서 일까? 참 신기했다. 늦은 저녁을 먹고 딸 내외와 산책을 나갔다. 헬싱키는 항구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바다가 있다. 신기하게도 수많은 요트들이 있다. 그리고 섬 곳곳에는 마치 성과 같은 집들이 있다. 늦은 밤인데도 해가지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다. 그 후로 나는 매일같이 아침조깅을 이곳에서 했다.
숙소가 시내 중심가 가까운 곳에 있기에 골목골목이 모두 구경거리였다. 돌로 된 포장도로를 걸으면서 노천카페에서 일광욕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거리에서 연주를 하는 그것도 한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사위가 다녔다는 그 유명한 헬싱키대학 건물을 보는 것도, 그곳에 세워진 어느 시대인지 모를 러시아 짜르의 동상을 보는 것도, 가장 오래된 도로에 세워진 물을 푸는 기계를 보는 것도, 핀란드의 사업이 최초로 발달된 곳을 견학하는 것도 모두 이방인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이곳의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다. 비가 억수로 퍼붓는다. 그러다가 말짱하게 그친다. 그러다가 또다시 비가 쏟아지고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본 땀미사르(땅끝 마을)에 있는 성은 마치 영화에서나 봄직한 중세시대 성이었다. 정말 견고하게 잘 짜여진 성이고 요새였다. 많은 곳을 관람하면서 한번도 입장료를 낸 적이 없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입장료를 냈는데 아무곳에도 지키는 사람도 표를 받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입장권을 사는 곳도 멀리 떨어져있다. 그래도 사람들은 모두 그곳까지 걸어가서 입장권을 사가지고 온다.
직업은 속일 수 없는 듯 암석교회를 가는 거리에서 본 양복 설치미술은 인상적이었다. 이쪽 건물과 길 건너편에 있는 건물에 줄을 걸어서 수십 개의 양복윗저고리를 수십 줄 걸어놓은 것이다. 만국기를 걸어 놓은 것은 본 적이 있지만 이런 작품은 처음 본 것이다.
'알비노성가'가 은은히 울려 퍼지는 암석교회는 그야말로 놀라운 모습이다. 천정을 제외한 모든 곳이 바위로 되어있는 것이다. 천정은 유리로 만들어 놓았다. 이곳 핀란드사람들은 95%가 기독교인이란다. 그리고 핀란드가 자랑하는 음악가인 '시벨리우스 기념관'은 재건축을 했다는데 그곳에 쓰였던 벽돌들을 모두 모아서 바로 앞의 공원에 마치 탑처럼 쌓아 놓았다.

교외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일행은 3가지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첫째 경찰차가 없고, 둘째 무인단속카메라가 없고, 셋째 견인차가 없다. 시내 어디를 가도 사람이 지나가려면 운전자가 손으로 먼저가라고 한다. 이곳 사람들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만 근무한단다. 우리나라는 교사들의 이러한 근무시간에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침에 또 비가 온다. 오늘은 일정을 모두 취소해야 할 것 같다며 잔뜩 실망을 하고 있는데 언제 비가 왔느냐는 듯이 날이 활짝 맑아진다. 항구에 나가서 배를 타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수오메린나 섬'의 '수오미성'에 갔다. 섬전체가 성으로 되어있다. 1750년에 러시아지배에 있던 핀란드가 요새를 만들고 1805년에 러시아가 침공하고 곧바로 항복을 하고 1917년에 독립을 하였으나 다시 스웨덴의 지배 하에 있었단다. 그때 영국이 터키와 연합으로 헬싱키를 침공을 하자 또 다시 항복을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섬이다. 1920년부터 감옥으로 쓰이다가 지금은 국군의 소유로 되어있단다. 우리일행은 이곳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튼튼한 요새를 가지고도 반복적으로 항복을 했다니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이순신장군의 불과 수십 척의 배로 수백 척의 왜선을 물리쳐서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라고 하자 사위는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단다. 그날 오후에 딸아이와 같이 현대미술관에 갔다. 미술관 규모도 엄청나고 전시하고 있는 작품의 규모나 양도 많다.

사부인의 초대로 헬싱키시내에 있는 한국음식점에 갔다. '한국관' 이라는 우리 음식점이다. 비빔밥과 김치찌개를 시키고 주위를 둘러보니 그곳 사람들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다. 그중에는 마침 '2005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가 헬싱키에서 열리고 있는데 우리 선수를 인솔하고 온 듯 한 임원4명이 앉아 있다. 반가운 마음에 한걸음에 달려가 인사를 주고 받았다. 음식점에서 한국인의 대단한 저력을 엿볼 수 있었다. 주인은 약 10여 년간 헬싱키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이곳에서 한국음식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귀국을 하여 고향에서 10여 년간을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자기만의 비법을 터득하여 다시 약 2개월 전에 이곳에 와서 전통한 국음식점을 차렸단다. 무려 20년을 준비한 것이다. 잠깐 보았지만 그 주인은 분명 성공한 한국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

핀란드의 옛 수도인 뚜르끄를 보기 위해서 기차역에 갔다. 뚜르끄에 불이 나자 그곳을 포기하고 수도를 옮겼단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가는 곳마다 동전을 내야한다. 갈 때마다 우리가 한말은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였다. 1280년에 짓기 시작했다는 뚜르끄성은 전쟁중에 폭파 됐으나 내부는 다시 증축을 하여 옛것은 옛것대로 또는 새로운 스타일은 그대로 지은 성이란다. 뚜르끄와 헬싱키는 마치 전라도와 경상도사이와 같단다.
1200년에 지었다는 교회를 구경했다. 그 교회내부의 바닥은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의 무덤이 많이 있다. 제단에 계시는 하느님이 내려다보도록 설계되어 있단다.

모처럼 그곳의 결혼식을 볼 수 있었다. 우리네 결혼 풍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하객들은 물론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하객들이 교회의 계단 양편에 서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어느 나라든 신랑 신부의 모습은 부러울 뿐이다. 교회내부의 모습 중 그림이 많고 장식이 많은 교회는 러시아 종교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루터교란다.
뚜루끄에 갈 때 탔던 기차는 요금이 많이 비쌌다. 그러나 올 때는 아주 싼 가격의 기차를 탔다. 기차내부도 더러울뿐 더러 기차에 탄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도 없이 큰소리로 떠들고 아이들도 마구 울어대고 정말 힘들었다. 이곳도 소말리아 보트피플이 많이 있어서 유럽에서는 보기 드물게 흑인들이 많다.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사전 지식을 충분히 얻어서 준비도 철저히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변덕스러운 날씨에 견딜 재간이 없다. 100년만의 무더위라는 더위를 견디고 있을 한국을 생각하면 행복한 일이지만 옛날에 월남에서 시집을 온 새댁이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한여름에도 담요만 둘러쓰고 방안에 앉아있다는 우스갯 소리가 헛소리가 아니다. 견디다 못해 백화점에서 두터운 모자가 달린 셔츠를 사 입었다. 그런데도 이곳 사람들은 끈만 달린 티셔츠와 민소매 옷을 입고 활보를 한다.

헬싱키의 교통망은 부러울 정도로 잘 되어있다. 이번에는 트램을 타고 시내일주를 하기로 했다. 나무가 많고 땅이 넓고 사람은 적은 곳이라서 시내도 공기가 무척 맑고 상쾌하다. 날마다 날마다 가장 부러운 것이 맑은 공기였다.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 물도 마실 만큼 깨끗한 물이다.

린다호라는 배를 타고 한 시간 반 정도 가면 에스토니아가 있다. 이곳은 핀란드에 비해 물가가 훨씬 싸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곧잘 배를 타고 에스토니아로 가서 쇼핑을 마음껏 하고 온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일본인들이 배를 타고 부산에 와서 실컷 먹고 물건을 사가지고 간다는 말이 생각나서 씁쓸하다. 추운 나라인 핀란드는 추위를 이기려고 술을 무척 많이 마시는 나라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술값을 비싸게 하고 판매도 정해진 곳에서만 할 수가 있단다. 자연 에스토니아에 가서 주로 술을 사가지고 먹는단다. 우리도 그런 일행에 끼어서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딸린에 갔다. 간단한 점심을 먹고 old town을 관광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탄성을 질렀다. 영화였다. 너무 아름답고 고색창연하였다. 더우기 비가 부슬부슬오니 그 정취란 말로 표현이 되질 않는다. 아름다운 시가지를 두루두루 구경하고 시청광장 노천카페에서 먹는 한 잔의 맥주란!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이다. 백화점에 들러서 며느리와 딸에게 줄 선물을 골랐다. 귀걸이와 목걸이로, 놀라울 정도로 싼 가격에....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우리도 술을 사서 항구로 나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문화수준의 차이를 바로 알 수 있었다. 과격한 운전은 물론 요금도 바가지이다. 우리나라의 모습이 떠 오른다.

일행 중 일부가 휴가기간이 짧아서 일찍 한국에 돌아가고 나와 남편, 그리고 동생댁 사위만 남게 되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숙소에서 짐을 챙겨 등에 짊어지고 끌고 하면서 항구에 도착하여 에스토니아의 딸린에 가고 다시 그곳에서 라트비아의 리가를 가기위해 버스를 탔다. 우리와 다른 점이 또 있었다. 일단 버스가 무척 크다. 화물칸도.... 의자에는 간이 식탁이 있고 차내에 화장실이 딸려있다. 예상시간 5시간, 예매가 않된 불안한 상태에서 다행히도 버스를 탈 수가 있었다.

국경이 나오자 수비대원이 차에 오르더니 신분증을 검사한다. EU국가들 간에는 여권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같은 이방인은 여권심사를 해야 통과를 한다. 꽤 오랜 시간에 걸친 심사가 끝나고 국경을 넘었다. 에스토니아에서 라트비아로 정말 신기했다. 우리나라는 국경을 넘으려면 주로 비행기를 이용하는데 버스로도 국경을 넘다니, 이런 모습이 여행 내내 신기했었다.

자정이 다 되어서 라트비아의 수도인 리가에 도착했다. 어렵게 숙소를 찾아갔는데 완전 중세의 성이다. 계단은 가파르고 좁은 화장실이 객실 두 개에 하나가 있다. 어설픈 잠자리에 모두를 심란해 하고 있다가 피곤한 몸인지라 잠이 들었다.

리가 시내는 정말 예뻤다. 여기저기에서 사진을 찍어대고 시장구경도하고 물론 이곳 물가도 아주 싸다. 발틱 3국 중 가장 크다는 라트비아도 구 소련의 지배를 받았기에 여기저기 스탈린의 흔적이 남아서 이곳 국민들의 아픈 과거를 말해주고 있다. 발품을 열심히 판 결과 많은 곳을 구경할 수 있었다. 저녁에는 한국음식점인 '설악산'이라는 곳을 찾아서 음식을 먹었으나 헬싱키의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없는 맛이었다. 물론 서비스도.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이곳에 정착해서 오랜 세월을 살다보면 음식도 자연스럽게 그곳 입맛에 맞게 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다. 역시 많은 교회건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곳곳에서 구걸을 하는 걸인의 모습을 보았다.

리가에서 기차를 타고 해변의 길이가 무려 20km나 된다는 유르밀라에 갔다. 과연 그 해변의 길이가 놀라울 정도이다. 전주에서 익산까지 거리이니까. 해변이 너무나 완만하여 전혀 위험해 보이지가 않고 너른 바다인지라 사람들 모습도 띄엄띄엄 한가하다. 나는 계속 저것이 수평선이구나 하면서 감탄을 했다. 정말 바다와 하늘이 딱 닿아있는 것이다. 리가 시장에서 그곳 특산물이라는 여러 가지 훈제 생선을 샀다.

조금 이른 시간에 리투아니아 행 버스를 탔다. 다시 6시간 정도를 가야 한다. 버스 속에서 이탈리아 여인이 두 아들과 여행을 한다며 아는 체를 한다. 짧은 영어로 서로 인사를 하며 헤어졌다. 버스를 타고 숙소를 갔다. 어제 저녁에 너무 좋지 않은 숙소의 기억이 있는지라 잔뜩 긴장을 했다. 다행이 아침밥도 주고 방은 아주 깨끗하고 전기스토브가 있어서 따뜻했다. 짐을 풀고 시가지 구경을 했다. 이곳은 호박이라는 보석이 유명한 곳이란다. 그리고 유리공예품들이 많다. 역시 교회건물이 대부분이고 '아침의 문'이라는 곳에는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서 마리아상 앞에 경배를 올리고 있었다. 교회 외관은 별로 화려하지 않은데 내부는 정말 화려하고 정교했다. 발틱 3국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 흥미로웠다.

수도인 빌니우스 거리를 걷고 있는데 보기 힘든 동양인이 길 건너편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동시에 혹시? 하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녀들도 우리와 같이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혹시 하면서 서로 말을 주고 받으니 우리의 동포 고려인이다. 몇 마디 나누지 않았음에도 정이 느껴지고 마음으로 안타까움이 넘친다. 헤어지려하자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만다. 반갑고 서러운 마음이 왜 없을까. 서로 얼싸안으면서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지금도 그때 만난 두 여인의 얼굴이 떠오르고 눈시울이 붉어진다.

다음날 나도 여자인지라 호박을 샀다. 큰 것은 내 몫이고 또 하나 작은 것은 사위의 체면을 차려주기 위해서 샀다. 한국에 가면 와이프에게 선물하라며... 헬싱키를 가기 위해 왔던 길을 역순으로 돌아온다. 리가에 들려서 유람선을 타고, 딸린에서는 카메라를 잃어버렸지만, 오는 길 내내 내가 언제 이러한 나라에 다시 올 수 있을까 생각하니 서운함이 앞선다.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크루즈여행을 위해서 헬싱키 항에 도착하여 여러가지 수속을 마치고 바이킹라인이라는 배를 탔다. 뱃속에서 하루를 자고 다음날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관광을 하고 또다시 배에서 자고 아침에 헬싱키에 내리는 일정이다. 솔직히 15시간을 배를 타야 한다는 말에 '큰일났구나 지루해서'라고 많은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너무 편안한 잠자리와 바다를 보고 즐기는

핀란드식 사우나 그리고 멋있는 레스토랑 일몰과 일출 등은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스톡홀름은 한눈에 보아도 역사가 꽤 깊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도시였다. 어디를 가나 구시가지의 아름다움은 비슷했지만 느낌이 또 달랐다. 시청의 종탑에서 바라본 시내는 정말 장관이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관광정책을 생각했다. 새로운 것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옛것을 되살리는 정책을 쓰면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옛 왕족들에 대한 생각을 했다.

오전 10시쯤 배에서 내려 중앙역에 임시로 짐을 맡기고 사위는 한국에 가져갈 우리의 가방을 가지러가고 우리들만 덜렁 남았다. 약 3시간 후에 만나기로하고.... 백화점 구경을 나섰다. stockman이라는 헬싱키 아니 핀란드 최대의 백화점이란다. 물론 발틱 3국에도 지점이 있었다. 특이한 점은 직원 외에는 수납하는 직원만이 있을 뿐이다. 물건을 살 때나 구경을 할 때 곁에서 일일이 참견(?)해주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오히려 나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았다.
이제 여행이 종반부에 왔다. 헬싱키 교외에 아주 조용하고 좋은 호텔에 투숙을 했다. 저녁에 여독을 풀 겸 다시 한번 핀란드식 사우나를 했다. 여전히 사람은 없고 조용했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집에 간다. 밤에 잠이 오질 않는다. 다시 가방을 꾸렸다. 잘 쌌다고 생각했는데 어쩐지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 벌써 몇 번째 인지 모른다. 짐을 싸면서 그간 다녔던 곳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내가 언제 다시 이런 여행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니 처음으로 나이가 원망스러웠다.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끝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날이 밝았다. 아침 식사를 위해서 1층 식당에 내려갔다.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으면서 서운함을 떨칠 수가 없었다. 특히 그날 마신 커피는 이곳에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이었다.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가니 벌써 바깥사돈께서 나오셨다. 여러가지 수속을 밟고 이별인사를 하고 면세구역에 들어갔다. 이것저것 구경하다 꼭 사가고 싶었던 에스프레소 커피잔을 발견하고 이내 구입을 했다. 기분이 마구 들뜬다. 갖고 싶은 것을 가졌다는 충만감에....
두 시간 반 만에 프랑크푸르트에 도착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럽여행을 위해서는 이곳을 꼭 거쳐야한다. 그래서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안내방송이 한국말로도 나와서 깜짝 놀랐다. 시간을 기다리는 도중에 중학생 또래의 아이들을 만났다. 아마도 어학연수를 다녀왔겠거니 짐작했다.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다. 무려 10시간을 가야한다. 비행기에서 보는 일몰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예정시간에 인천에 도착하여 간단한 수속을 하고 가방을 찾으러 갔는데 아뿔싸 우리 짐이 오지 않은 것이다. 와인을 샀는데 그것을 포장하면서 몸통부분을 옷으로 감았더니 그것이 위험물건으로 취급이 되어 도착하지 않고 다음날 도착 할 것이란다.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할지.....

시차란 것이 별것 아닐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새벽 3시까지 잠이 오질 않는다. 그리곤 낮에는 머리가 아프고 의욕이 없다. 여행지만 머릿속에 빙빙 돌뿐이다. 이것이 후유증일까?
여행 내내 한국에 돌아가면 이런 점들을 아이들에게 수업시간에 꼭 이야기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한줄 서기라든지, 외국인이라도 영어를 유창하게 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점이라든지, 어린 나이에도 배낭하나 달랑 메고 여행하는 모습이라든지, 여행 중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양보 이해, 우리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다.
지금도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리투아니아 수도 빌니우스에서 만난 고려인들과 차 속에서 만난 이탈리아 모자의 모습들이다. 또 국경을 넘을 때 EU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간의 차별도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물론 수많은 경치들도 떠오르지만 그것 보다는 핀란드의 맑고 깨끗한 공기는 오래도록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다.

어찌 생각해 보면 긴 여정을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게 무사히 다녀온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디에서나 변함없는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리라.

갤러리산책로 OPEN

www.sanchaekro.com

주소 : 전북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342 Tel. 063)221-0764, Fax 222-0764

Gallery 산책로

큐레이터 **설 재 경**

21세기는 문화마케팅의 시대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의 수입을 공업생산품의 수입과 비교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은 미디어 매체에 한정된 경향이 있다. 특히 미술은 생활속에서 많은 양화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어렵다거나 작품이 너무 고가라는 선입견 때문에 점점 더 생활과 멀어지고 있다. 일부 작가들은 대중과의 소통을 위하여 매체를 오브제로 이용하거나 어법을 빌리기도 하는데 유독 미술시장의 판매 방식은 고전 그대로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늘 호기심 또는 불안과 염려의 대상이 되는데 그럼으로써 또 하나의 세계가 시작 되고 역사가 되며 익숙함의 대상이 된다.

갤러리 산책로는 이러한 미술시장의 협소함과 지지부진함을 벗어나고자 미술인에 의해 시작된 새로운 유통의 패러다임이다. 이는 단지 미술유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관람자와의 소통, 작가의 창작활동에의 지원, 일반인들에게 미술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효과를 통해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나아가 문화전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보면 먼저 미술품 보급에 관한 문제이다. 고가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싶은 욕구는 몇몇 유명작가들의 아트 포스터로 대체 되고 있는데 이는 미술품에 대한 한정된 시각을 갖게 할뿐더러 계속 복제됨으로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포스터나 인쇄물의 의미 이상을 갖기가 어려워 작품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

산책로 디지털 판화는 산책로만의 프린트 기술을 이용 여기에 판화개념을 도입하여 열심히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작품을 선별하여 에디션과 작가싸인을 적용함으로서 작품의 질을 높인 반면 원화에 비해 저가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여러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나온 결과물이며 이러한 시도는 작가의 감각과 열정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미술품의 유통에 있어서의 혁신이다. 갤러리는 전북 임실군 구이면 백여리 한적하고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전주에서 순창방면으로 가다보면 모악산을 지나 운암호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의 중간에 있다. 일반의 갤러리처럼 도심이나 갤러리 밀집지역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전시관람 이나 작품구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직접 가서 보면 더욱 좋겠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 해결책은 인터넷에 있다. 지금 세대는 인터넷에 익숙해있고 거의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다.



외국에 있는 상품까지도 안방에서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경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전시는 일반인들의 사회활동 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오픈을 하고 특정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쉽게 접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몇몇 유명한 대형전시 외에는 맘먹고 시간을 내기도 힘들다. 산책로는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온라인 갤러리와 같다. 그러나 산책로는 단지 온라인 갤러리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서 온라인갤러리라 함은 기존의 갤러리가 그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단지 온라인상에 그대로 적용했음을 가정한다. 산책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림의 새로운 홍보방식 도입했으며 그 투자가치를 직접 산책로에서 만들어주고 있다. 흔히 고가의 미술품 구입은 그 투자가치를 염두해 두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산책로는 정직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그 투자가치를 실현해 주고 있다. 회원은 작품을 받아보고 주위에 소개를 한다. 이때 아래 각 회원한명당 천원의 후원금이 적립된다. 회원은 2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무리하여 여러명을 할 수도 없으며 상위로 갈수록 퍼센트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이는 단지 산책로에서 제공하는 후원금일 뿐이다. 산책로는 자연스러운 홍보를 유도한다. 그만큼 작품에 자신이 있다. 받아보고 결정하라는 것이다. 사업 내용이나 작품을 볼때 과장할 것도 없으며 강요는 더더욱 산책로의 설립취지와 어긋나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모든 것을 합법화했으며 구매시 공제번호를 발급하여 손해배상도 작품하나당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부담없는 가격으로 미술과 친해지고 안목을 키운다면 자연스럽게 원화에의 관심 또한 미술문화에대한관심으로 연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다만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그동안 직접판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나 팽배해 있어서 이에 대한 인식전환을 꾀하는 것이다. 특히 문화라는 것과 직접판매의 결합은 문화이미지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모든 유통에서 발생하는 수익구조를 전면에 드러냄이 더 역효과를 내는 경우이다. 그러나 산책로는 정직함에 대한 소신이 있다. 이를 꾸준히 어필할 것이며 결과물로 보여줄 계획이다.

이제 작가의 창작지원면을 살펴보자. 그동안은 예술이란 것이 개개인의 느낌에 따라 감상되고 각자의 취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유명세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신과 작품과의 교감이 배제된 타인에 의한 감상평에 의존함으로서 작품에서 소외되고 더욱이 작가와의 거리는 더 멀 수 밖에 없다. 갤러리산책로는 산책로 작가들의 각각의 게시판을 마련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작품에 대한 열정만 있을 뿐이지 판로에는 관심이 없거나 알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역량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시장에 내놓고 그 수익이 또한 작품 창작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책로는 기획전이나 공모전을 통하여 작가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단지 온라인 전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오프라인 전시장은 언제나 작가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고 관람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다.

특히 회원들은 동호회처럼 많은 것을 서로 나누고자 기획할 것이다.

갤러리산책로는 미술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보다 발전하여 침체되어 있는 미술계에 하나의 개척점이 되어 기여하고 싶으며 더 나아가 문화전반으로 까지 이어졌으면 하는게 산책로 식구들의 바램이고 이에 노력하고자 한다.



읽을 만한 책



인생이 그림같다 〈손철주/생각의나무(도)/12,000원〉

삶과 문화의 노련한 산책자 손철주가 그림을 통해 본
지극한 아름다움과 덧없음 그리고 즐김에 대한 이야기

완상이란 좋아서 구경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워낙 바빠서일까, 요즘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도 진득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떠밀리는 종종걸음으로는 푸른 하늘조차 한 조각 훔쳐보기 어렵다. 내가 손철주 선배에게 늘 감탄하는 것은 그가 타고난 완상가라는 사실이다. 속된 말로 세상이 팽팽 돌아도 그는 그걸 "슬로 모션"으로 볼줄 안다. 그 완상가의 그림 보기가 우리로 하여금 그림뿐 아니라 세상 보기의 진정한 맛과 재미를 알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의 시선으로 보면 세상에는 "별 볼이 없는"게 하나도 없다.



스케치와 드로잉 〈메릴린스콧/마로니에북스(내서)/13,000원〉

* 이 책은 연필과 목탄에서 파스텔과 컬러 잉크에 이르기까지, 모든 드로잉 매체를 총망라한 완벽 가이드이다.
* 두세 가지 드로잉 매체를 혼합해서 흥미롭고 이색적인 효과를 얻는 방법을 배운다.
* 전문화가의 작업 진행 과정을 차례로 보여주는 100여 개의 단계별 데모를 통해 까다로운 주제도 거뜬히 해소한다.



나의육필까세집 〈김성환/인디북(도)/15,000원〉

최영미가 유럽을 여행하며 관람한 미술품에 대한 소개와 그녀의 소감을 적은 글이다.기행 형식을 빌어 쓴 미술 평론집같다.73작의 컬러 삽화를 싣고, 작품들에 대한 그녀의 느낌을 적었다.유럽을 여행한 순으로 각 나라의 도시별로 소제목되며 작품이 소개된다. 미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평소에 한번쯤 들어봤을 작가나 작품들을 사진으로 볼 수 있다. 렘브란트, 고야, 샤갈, 베이컨, 로댕, 브뤼겔등 여러 작가의 작품과 그녀의 해설이 씌여 있다.
평소 미술에 전혀 관심 없었으나 친구의 소개로 읽게 되었다. 책읽기 전에 주의할 것은 그림을 보기 전 작가의 해설을 읽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 느낌을 갖기도 전에 작가의 생각이 세뇌 될 수 있으니까.. 나처럼 미술분야에 문외한 사람이라면 궁금했던 작가나 미술품 사진도 볼 겸 한번쯤 읽어 볼 만 하다.



예술가를 위한 해부학〈새러심블릿/예경(도)/48,000원〉

시각적으로 놀라운 자료를 제공하는 이 책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인체에 접근하고자 하는 작가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 이 책에는 인체의 은밀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특별히 촬영된 250여 장의 사진과 100여 장의 드로잉이 실려 있다.
* 이 드로잉과 사진을 통해 인체의 내부 구조가 인체의 외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드로잉 강좌는 골격, 머리, 흉곽, 골반, 손과 발이라는 인체 각 부분의 형태를 시각화하고 그려낼 수 있도록 인도한다.
* 명작 연구는 세계의 명화를 분석하여, 해부학에 대한 대가들의 태도와 지식, 활용방법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예술가를 위한 해부학"은 인체에 관한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관점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참고도서가 되리라 믿는다.

전북회화

전북 회화회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전북 회화회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질을 높이고 한국화에 대한 저변확대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전 · 북 · 회 · 화 · 발 · 자 · 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 4~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
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8. 하계 스케치여행:군산 개야도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7. 29 하계스케치-동상 수련장
1994. 12. 12~20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전북인물 열전-예루갤러리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초청강사: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1998. 6. 정기모임-정기 전북회화회전 계획 논의
1998. 8. 하계 도예 캠프-기간:8.6~8.8 장소:백제도예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초청 세미나(주제: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초청강사: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초청특강
(주제 "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초청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3. 31 백제대학 기획 초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초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홍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9. 14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회지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
(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
(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섬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2003. 3. 정기총회
2003. 6.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3. 8. 정기모임-실기대회 추진계획 및 회지논의
2003. 10. 정기모임-실기대회 운영 및 정기전 논의
(신입회원-박지혜,김영애,윤호,이혜련,최윤경,이광원)
2003. 10. 23 제1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개최(전주덕진공원)
2003. 11. 정기총회-시상식 및 입상자 전시 및 정기전논의
2003. 11.30~12.6 제11호 전북회화지 발행 및 정기전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2004. 3 정규총회
2004. 4. 17 신입회원환영식및야외스케치여행(구례,산동)
2004. 6 정기모임:제2회전국청소년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운영위원모임
2004. 8 정기모임:실기대회및회화지논의
2004. 9. 22 실기대회(덕진공원)
2004. 10. 24 제12호전북회화지발간(정기전및시상식-국립전주박물관)
2004. 12 정규총회
2005. 2 도예캠프 '위봉사'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05. 5 정기모임 :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계획
2005. 7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개최(덕진공원)
2005. 8 정기모임 : 실기대회전시 및 시상식
회화회지(회화회 부산,대전 교류전) 논의
2005. 10 회화지 편집위원 모임
2005. 12 정규총회
제13회 전북회화지 발간
먹빛 형상전(전북회화회, 대전, 부산 교류전)

박지예
방정업
서진숙
안순금
엄기석
이광원
이승훈
이진숙
이철규
이환배
정이헌
최병남
김 란
이우정
고형숙
김윤숙



편 · 집 · 후 · 기

유난히도 단풍이 아름다웠던 가을도 빛바랜 낙엽처럼 한 해의 마지막 계절인 겨울에 밀려나고 2005년 한 해도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회화지를 낸지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이면 강산이 변하다고 합니다. 제 위치에서 제 빛깔과 목소리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열정과 노고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전북회화」회에서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 번째 전통미술 실기대회를 열었고 그 입상자의 작품을 전북예술회관에서 전시하여 성장하는 청소년을 격려하였습니다. 더욱 알차고 규모 있는 실기대회가 되어서 미래 전통회화를 뿌리삼아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산실이 되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청소년 실기대회를 규모 있는 실기대회로 성장하도록 힘이 되어준 미술교사와 학원 관계자 분,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각 대학 교수님, 경제적 후원을 해주시는 우진문화재단. 그리고 직접 참여한 학생 여러분에게 이 지면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회화지를 위해 옥고를 보내주신 이동희 교수님, 이선우 교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회화에 깊은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홍량 교수님, 먹빛 현상전(전북, 대전, 부산작가 교류전) 및 회화지가 나오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힘을 모아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호는 더 알차고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 회화지가 되도록 애정과 사랑어린 관심 바랍니다.

2005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